

시니어 성도 및 사역 현황 “신앙과 공동체에 대한 갈망 커”

〈미주한인교회 시니어 성도 및 사역현황〉 설문조사 결과 발표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 (CPU, 전 미주장신) 평생교육원(원장 이성희 목사, 프로젝트 매니저 황성만 목사)은 미주 한인교회 시니어 성도들의 신앙과 사역 현황을 파악하고자 2024년 12월 16일~ 2025년 2월 27일까지 총 3개월에 걸쳐, 목회 데이터연구소와 함께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5월 28일 (수) 오전 11시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흥연에서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미주한인교회 시니어 성도 및 사역현황〉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조사는 시니어 성도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시니어 성도의 삶과 신앙, 사역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실천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설문조사 주요 결과 요약

1. 신앙생활: 목회자 의존도 높고, '구원' 중심의 동기 강조
조사에 따르면 미주 한인 시니어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구원과 영생'(69.5%)으로 나타났다으며, 이는 한국 시니어 성도보



5월 28일 오전 11시 LA 한인타운 흥연에서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 평생교육원(원장 이성희 목사)은 기자회견을 열고, 〈미주한인교회 시니어 성도 및 사역현황〉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했다. 왼쪽부터 김루빈 교수, 이성희 목사, 이상명 총장, 송정명 목사(미주성시화운동 대표), 황성만 목사(프로젝트 매니저). ©기독일보

다 9.5%p 높은 수치다. 반면 '마음의 평안'이라는 응답은 12.8%로, 한국보다 낮아 보다 신앙 중심의 동기를 지닌 것으로 분석된다.

신앙적 영향력에 있어 절반 이상(55.3%)이 '출석교회 목회자'를 가장 큰 영향 요인으로 꼽았으며, '가족'이나 '신앙서적', '유튜브'보다 교회 내부 자원의 영향이 컸다. 신앙 성장을 위한 주요 자원으로도 '담임목사 설교'가 55.7%로 가장 높았으며, 특히 80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그 의존

도가 68.5%에 달했다.

2. 교회 생활: 소그룹 활동과 목회자 관심 요구 높아

시니어 성도들이 교회에 바라는 점으로는 '동년배와의 소그룹 활동'(43.5%)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목회자의 관심과 연락'(32.9%)이 뒤를 이었다. 이는 한국 교회 시니어들과 비교해 목회자의 정서적 지지에 대한 기대가 더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하지만 교회 내에서 위축감을 느끼는 시니어들도 적지 않았다. '젊은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 눈치가 보인다'는 응답이 30.2%, '나이가 들어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는다'는 응답이 18.8%에 달했다.

한편, 70세 이상 시니어의 63.8%는 은퇴 후에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사역에 적극 참여하고 싶다고 밝혔으며, 온라인 예배 참여 의향도 85.6%로 매우 높았다. 교회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63.0%로 한국

시니어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3. 시니어 프로그램: 다양성과 질적 향상 요구 높아

현재 미주 한인교회에서 운영 중인 시니어 프로그램은 '남·여 선교회'(52.8%), '시니어 소그룹'(51.1%)이 가장 많았고, '성경공부', '봉사활동'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참여율은 선교회 모임이 62.7%로 가장 높았지만, 노인 전문 프로그램은 35.1%로 다소 낮았다.

시니어 프로그램 인도자는 '평신도'가 가장 많았으나(42.2%), 만족도는 '목사' 인도 시 가장 높게 나타났다(평균 3.8점, 만족 응답률 56.2%).

개선이 필요한 점으로는 '프로그램 다양성 부족'(51.7%)과 '수준 낮음'(12.6%)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으며, 전반적인 프로그램 만족도는 29.0%로 낮은 편이었다. 시니어 성도들은 향후 '주중 프로그램'(70.7%)과 '소그룹 운영'(67.3%)을 원하고 있었으며, 선호 프로그램으로는 '노년 생활', '신앙/영성 훈련', '건강관리' 관련 내용이 주를 이뤘다. 특히 '죽음에 대한 강의'에 대한 참여 의향이 77.0%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내용 제공 : CPU 평생교육원, 목회데이터연구소 →3면에서계속

트럼프 경고에도 ... 트랜스젠더 고교생, 女대회 휩쓸어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미국 고교생이 주 단위 육상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후루파 밸리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트랜스젠더 A. B. 에르난데스(A.B. Hernandez)는 지난 5월 31일 개최된 캘리포니아주 고교 육상대회 여자 종목에 출전해 높이뛰기와 3단 뛰기 부문에서 1위, 멀리뛰기 부문에서 2위를 차지했다.

과거에도 트랜스젠더 선수가 우

승한 경우가 몇 차례 있었으나, 이번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전에 에르난데스의 출전에 문제를 제기한 데다 연방정부까지 개입하며 전국적 이슈로 확산됐다.

캘리포니아주는 2013년 마련된 주법에 따라 학생이 자신의 성 정체성과 일치하는 부문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에르난데스의 여성 대회 출전을 놓고 논란이 심화되자, 주최측인 고교육상연맹 측은 그가 출전한 종목에 선수 1명이 더 출전할

수 있도록 하고 메달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특히 함께 출전한 선수들에게 에르난데스가 출전하지 않았을 경우의 순위를 인정했다. 이 때문에 에르난데스는 높이뛰기와 3단 뛰기에서 1위를 했으나, 시상식에서는 다른 여자 선수와 공동으로 우승 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번 대회에서는 일부 비판자들이 "여자 스포츠를 지켜라"는 문구가 적힌 팔찌와 티셔츠를 착용하고, "여자 스포츠에 남자는 안 된다"는

문구가 적힌 배너를 단 항공기가 경기장 상공을 순회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회에 앞서 캘리포니아주에 트랜스젠더 학생의 출전을 금지하지 않을 경우, 연방 자금 지원을 끊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여성 스포츠에 남성 출생자의 참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던 그는 "이 행정 조치는 세금을 지원받는 모든 학교 스포츠에 적용되며, 여성 선수에 대한 불공정한 경쟁을 사실상 종식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혜진 기자

미주기독일보



TV기독일보 주간뉴스



당일송금
송금·환전

당일지급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미국 ↔ 한국

7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상법/부동산법 ■뱅크럽시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에 대한 스트래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대면·전화상담 예약
213.820.3704

태양광, 솔라!!

2025년
대박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연방ITC: 30% 이상

☑솔라 설비의 감가상각비 총 60%를 다음해에 공제 가능(2024년 설치 시)

☑원금 회수기간: 3년~6년

☑전기료 절감: 최대 90%

BTS SOLAR DESIGN 213.500.8000

(원)마동환 변호사 그룹 대표
(원)국제이비스 USA 이사장
(원)남가주 교외임의외 고문 변호사
(원)제미발행가 협회 고문 변호사
(원)중부상공회의소 이사장

www.marhlaw.com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변호

의뢰인의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 변호

실력

문제의 핵심이슈 파악
법에 관한 해박한
지식과 적용

정성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원칙

책임

모든 과정에 대한 책임
의뢰인과의 대화 창구
활짝 열림

신뢰

의뢰인과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

상법 / 부동산법

상법의 전반적인 분야(비즈니스, 부동산법, 세관법,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 기간 그 실력을 인정받아 온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에 대한 스트래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그 어느 분야보다도 상법에서는 지략과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피지가 이루어지려면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긴밀한 대화와 그로인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뱅크럽시

뱅크럽시는 새로운 출발은 물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법이기도 하지만,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선투리 해서는 안됩니다.
꼭 변호사와 상담을 하신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마동환 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대면·전화상담 예약 모든 상담 절대 비밀 보장
213.820.3704
사무실 : 213.487.9190
F a x : 213.487.9484 marhlaw@yahoo.com
Main : 700 S. Flower St., #1000 LA, CA 90017
3435 Wilshire Blvd, #2700 LA, CA 90010

“교회는 복음전파 위해 부름 받은 공동체”

주안예교회가 창립 12주년
감사예배, 김일권 선교사 초청

주안예교회가 창립 12주년 감사예배를 1일 오전 8시에 드렸다.

지난 금요일부터 12주년 기념 선교 세미나에서 말씀을 전한 김일권 선교사(OM 한국국제선교회 대표)는 이날 주일예배에서 ‘세상을 향한 교회의 사명’(사도행전 1:8)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 선교사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다른 세 인격으로 존재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완전한 연합으로 하나 되어 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며 “C. S. 루이스는 그의 저서에서 사랑은 한 인격이 다른 인격을 향해 가지는 것이라 했다. 만일 하나님이 한 인격을 가지고 있었다면, 사랑하는 대상이 없었을 것이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인격 안에서 역동적인 사랑의 간격은 계속 되어지는 것이라 한다”고 했다. 이어 “그 사랑은 안에만 거하



김일권 선교사가 ‘세상을 향한 교회의 사명’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기독교일보

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로 사랑이 확장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온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이라 하는 것”이라며 “창조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 우주로 확장되는 선교 사역

이다. 선교는 교회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사랑의 확장이 선교의 시작이다”고 강조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 보내는 것을 바로 선교라고 한다. 교회



창립 12주년을 맞아 주안예교회가 감사예배를 드렸다. ©기독교일보

는 보냄을 받은 공동체이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공동체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라고 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곳은 교회 밖에 없으며 하나님께서 사명자들을 돕기 위해 모든 선교의 원천 공급자가 된다는 것을 강조하며, “사도행전 20장에 하나님께서 피곤을 주고 사신 곳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

든 교회를 세운 목적은 분명한데, 그것은 복음전파를 위해 세상에 보내기 위해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복음 전파 사명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헌신으로 모라비안 공동체와 같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바란다”고 설교를 마무리했다.

주안예교회 창립 12주년 감사예배는 이충환 담임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토마스 맹 기자

봄햇살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발달장애 작가 초대전

봄햇살과 함께 하는 대한민국 발달장애 작가 초대전이 6월 7일(토)~20일(금)까지 파크뷰 갤러리(PARK VIEW Gallery, 2410 James M. Wood Blvd, LA)에서 개최된다.

‘봄햇살’은 발달장애에 대한민국 청년작가들로 구성된 미술 단체로, 김지선 작가가 2018년 장애인작업의욕을 고취하고 자부심,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설립한 단체로, 매년 정기전과 소속 작가들의 개인전을 통해 발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주민들과 소통하고 있다.

이번 개인전 참여 작가로는 강다해, 강선아, 고통우, 김가은을 비롯해 30명이 참여하며, 첫날인 7일과 8일에는 봄햇살 설립자이자 발달장애 작가들의 그림 선생님인 김지선 작가와 이번 전시회에 참여하는 발달장애 작가 2명이 관람객들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마련된다.

전시회 오프닝 리셉션은 6월 7



봄햇살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발달장애 작가 초대전.

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전시에는 국내외의 미술 관계자들과 LA 시장과 상원의원, 예술 애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전시 일정

6월 7일~20일(토~금)

토~주일: 2시~6시

화~금: 11시~6시

후원 및 전시회 문의: 박상현 323-688-9703 주디 한 기자

국기원, 세계 최초 AI 태권도 시스템 공개

태권도 종주국인 국기원이 미국 캘리포니아에 첫 공식 해외 지부인 ‘국기원 캘리포니아(KUKKIWON California)’를 개소하고, 세계 최초의 AI 기반 태권도 수련 시스템을 전격 공개했다. 이번 행사는 태권도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글로벌 전환의 이정표로 주목받고 있다.

개소식은 지난 5월 25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부에나팍 ‘더 소울스몰(THE SOURCE MALL)’ 내 K-POP 센터에서 개최됐으며, 이동섭 국기원 원장, 데이브 민 연방하원의원, 조이스 안 부에나팍 시장, 프레드 정 풀러턴 시장 등 정계와 태권도계 주요 인사 3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은 국기원이 CM Holdings USA(대표 이주형)와 공동으로 개발한 AI 태권도 수련 시스템의 첫 공개 시연이었다. 이 시스템은 센서나 웨어러블 기기 없이도, 일반 스마트폰이나 카메라만으로 수련자의 동작을 실시간으로 인식 및 분석하여 피드백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품새 정확도 평가, 승단 심사, 표준교육 등의 원격화가 가능해졌으며, 특히 비대면 환경에서의 수련 방식 혁신이 기대된다.

박진웅 CM Holdings USA 최고



국기원 캘리포니아 지부가 CM 홀딩스와 손을 맞잡고 사무소를 오픈했다. 오픈 행사 후 주요 관계자들과 태권도 시범단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독교일보

운영책임자(COO)는 “이 AI 시스템은 태권도의 본질을 유지하면서도, 데이터 기반 피드백을 통해 교육의 질과 접근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며, “향후 미국 내 1만여 도장을 대상으로 SaaS 모델을 공급하고, 글로벌 온라인 수련 플랫폼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기원은 이번 캘리포니아 지부 개소를 계기로, ▲전국 도장 인증 시스템 운영 ▲지도자 재교육 프로그램 ▲AI 수련 시스템 상용화 ▲K-문화와 연계한 글로벌 마케팅 ▲청소년 리더십 프로그램 등 다각적인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신용섭 국기원 캘리포니아 지부

장은 “이번 개소는 북미에서 태권도의 정통성과 철학이 뿌리내리는 출발점”이라며, “미국 전역을 아우르는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태권도의 위상을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소식 마지막 순서로 펼쳐진 국기원 시범단의 퍼포먼스는 전통 기술과 LED를 활용한 현대적 연출이 어우러져 참석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냈다.

이동섭 국기원 원장은 “전통을 넘어 미래로 나아가는 태권도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며, “AI 기술을 통해 품새 평가부터 승단 심사까지 디지털로 구현하는 글로벌 기준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마스 맹 기자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2025년 가을학기 게이트웨이 신학대학원의 한영이중언어과정(KEB)에서 학생을 모집합니다.

■ 등록마감일 : 유학생 6월 1일, 미국거주자 7월 15일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 909-687-1649 KEB@GS.EDU
OR VISIT : www.gs.edu/keb



-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기독교교육학석사(MAEL), 선교학석사(MGE)
- 주 소 : 3210 E. Guasti Rd, Ontario, CA 91761

한영이중언어과정(KEB,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은

-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되는 이중언어 과정입니다.
- 세계 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회가 후원하며 게이트웨이(구, 골든게이트)의 탁월한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이민교회와 더 나아가 세계를 섬기는 역량있는 기독교 지도자 양성 과정입니다.
- 수업 진행은 대면, 원격,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 북미주 최고의 학력 인증 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ATS)와 WASC Senior College and University Commission(WASCU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특심 위에 세워진 은혜 공동체

HD 은혜교회, 창립 6주년 및 김의구 목사 취임 감사예배

HD 은혜교회가 창립 6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6월 1일(주일) 오후 4시, 교회 본당에서 창립 6주년 기념 및 김의구 목사 취임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에는 국제총회 교단 목회자들과 지역 교계 인사들, 은혜한인교회와 ANC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함께 참석해 지난 6년간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새로운 리더십 아래 HD 은혜교회가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갈 것을 함께 다짐했다.

예배는 김종욱 목사(국제총회 상임총무)의 사회로 시작되어, 강성수 목사(빅토밸리 목사회 회장)의 대표기도와 시편 84편 1~5절 성경봉독이 이어졌다. 말씀을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 담임, 국제총회 경증총회장)가 “성전을 사랑하는 자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전했으며, 한목사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는 결국 복된 삶을 누리게 된다”며, HD 은혜교회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로 세워지길 당부했다.



HD 은혜교회가 창립 6주년 기념 및 김의구 목사 취임 감사예배를 드렸다. 가운데 김의구 목사. ©기독일보



HD 은혜교회창립 6주년 기념 및 김의구 목사 취임 감사예배. ©기독일보

한목사는 “요셉과 다니엘처럼 삶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신다”며, “이 교회는 지난 6년간 팬데믹의 어려움 속에서도 성도들이 눈물로 교회를 붙들며 헌신해 세워진 은혜의 공동체”라고 했다.

이어서 마원철 목사(Repair Servant Ministry)의 봉헌송 ‘주의 은혜라’가 예배 분위기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었다.

2부 순서로 진행된 김의구 목사

담임목사 취임식에서는, 김목사가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으로 목회 사역을 감당할 것을 서약했으며, 성도들도 담임목사를 영적 지도자로 받들고 함께 교회를 세워갈 것을 다짐했다. 이어 한기홍 목사의 인도로 취임패가 수여되었고, 유진소 목사(부산 호산나교회)의 영상 축하 메시지, 김태형 목사(ANC 온누리교회)의 축사, 이영선 목사(미주복음방송국 사장)의 권면이 이어지며 취임을 축하했다. 교회 성도들은 축하 ‘충만’을 통해 새로운 목

회자와 함께 나아갈 공동체의 비전을 찬양으로 고백했다.

김의구목사는 담사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지만 ‘내가 내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사역을 감당하고자 한다”고 고백하며, “HD 은혜교회가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하나되고, 은혜와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길 소망한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랑으로 성도를 돌보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는 목회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김목사는 풀러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아주사 하가든 신학대학원과 베데스다 대학교를 졸업했다. ANC 온누리교회와 호산나교회에서 오랜 기간 부교역자로 사역해왔으며, 특히 장애인 선교에 대한 사례연구 논문을 통해 실천적 사역에 대한 고민과 비전을 제시했다. 현재는 슬하에 김혜실 사모와 두 딸, 김하슬(Jaime) 양과 김하연(Lynn) 양을 두고 있다.

조셉 리 기자

→ 1면 기사 <시니어 성도 및 사역 현황>에 이어서

4. 일상생활: 건강과 신앙, 자녀 관계가 삶의 중심

시니어 성도들의 일상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건강’(61.7%)과 ‘신앙’(54.9%)이었다. 신앙적으로는 ‘기도’(33.2%)에 가장 높은 관심을 보였다. 주요 질병으로는 심혈관 질환(32.2%), 당뇨병(30.5%), 관절염(28.0%) 등이 꼽혔지만, 건강 상태에 대해선 76.7%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생활 만족도는 48.7%였으며, 가장 만족하는 부분은 ‘자녀와의 관계’(68.9%)였다. 그러나 일상에서 영어 소통에 불편을 느끼는 비율은 59.2%로, 언어 장벽 문제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목회자 시각: 시니어 중심 교회 현실 속, 전문 사역자 필요성 대두

응답한 목회자들에 따르면, 현재 출석 성도 중 60.9%가 시니어 성도로 나타났으며, 시니어 소그룹 운영 교회는 68.8%에 달했다. 하지만 ‘노인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회는 17.5%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목회자 68.6%는 ‘시니어 전문 교육 프로그램

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시니어 사역의 체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령친화적 교회 지향 필요

이번 조사는 미주 한인교회 시니어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깊은 동기를 갖고 있으며, 목회자와의 관계, 소그룹 공동체 활동, 그리고 실질적인 삶의 문제를 다루는 프로그램에 대한 강한 욕구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죽음 교육, 은퇴 후 사역 참여, 건강관리와 같은 주제에 대한 높은 관심은 시니어 사역의 내용과 방향 재정립을 요구하고 있다.

대형교회와 중소형 교회 연합 콘텐츠

시니어 사역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수준 향상, 고령친화적 교회 환경 조성, 그리고 목회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돌봄이 절실하다. 또한 중소형 교회에서는 대형 교회나 연합회 차원의 콘텐츠를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 관계자는 “앞으로 교회는 시니어가 단순한 ‘수혜자’가 아닌, 공동체 내에서 여전히 사역자로 존재할 수 있도록 돕는 구조로 변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공동체”

LA씨티교회 창립 11주년 감사예배

LA 씨티교회(씨니 김 목사)는 6월 1일(주일) 오전 11시, 창립 11주년을 맞아 감사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교회의 본질을 되새겼다.

이날 예배는 찬양과 기도, 선교사 임명식, 감사패 수여, 특별 연주와 헌신 찬양 등 풍성한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노명희·윤용주 선교사 부부가 새롭게 선교사로 임명되며, 씨티교회의 선교적 정체성을 재확인했다.

씨니 김목사는 사도행전 2장 42-47절을 본문으로 “다시 교회답게(Back to being the Church)”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씨티교회는 처음부터 예배당이 아닌 부동산 일터에서 시작되었고, ‘내가 교회’가 되어 살아보자’는 결단으로 출

발했다”고 회고했다.

특히 그는 “지난 11년을 돌아보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며 눈물을 글썽이며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간증했다.

리요, 선교의 현장”임을 선포했다. 이어 “교회를 다니는 자가 아닌, 교회가 되는 삶을 살아가자”고 성도들에게 도전했다.

예배에는 라스베이거스 목장 성도들,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학우들, 그리고 ‘홈커밍데이’를 통해



김목사는 “교회는 건물이나 삶,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살아내고, 사랑으로 교제하며,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공동체”라면서 “우리가 있는 그곳이 곧 예배의 자

일터에서 만난 지체들도 함께하며 은혜를 더했다. 아울러 멕시코 선교와 사역에 헌신해 온 조규배 선교사 부부와 교회를 위해 묵묵히 섬겨온 양안나 장로에게 감사패가 전달됐다. 김민선 기자

감사의 자리, 축복의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랜 세월, 변함없는 믿음과 헌신으로 교회를 섬겨오신 은퇴 및 원로 목사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며, 저희 OC 목사회 임원 일동이 작은 위로와 축복의 시간을 준비하였습니다.

목사님과 함께하는 이 따뜻한 시간에 더 큰 위로와 기쁨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귀한 걸음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25년 6월 16일(월) 오전 11시
- **장소** : 갈보리선교교회
8700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0
- **문의** : 강문수 목사 909-519-0876
정찬군 목사 562-315-6543



“‘토요일은 밤이 좋아’ 부르는 것보다, 하나님 전하는 게 유익”

남가주 헬로십 교회 창립 31주년 기념 부흥성회

지난 5월 23일-25일(금-주일) 포모나에 있는 남가주 헬로십 교회(김성계 목사)는 ‘토요일은 밤이 좋아’ 등의 히트곡을 부른 김종찬 목사(말씀과찬양의교회)를 초청해 창립 31주년 기념 부흥성회를 개최했다.



지난 5월 23일-25일(금-주일) 남가주 헬로십 교회(김성계 목사)는 ‘토요일은 밤이 좋아’ 등의 히트곡을 부른 김종찬 목사(말씀과찬양의교회)를 초청해 창립 31주년 기념 부흥성회를 개최했다.©기독일보

25일 주일 2부 예배에서 김종찬 목사는 딤후 3장 16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거둬 암송하고 묵상하라”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며, 성도들의 영적인 힘은 말씀을 암송하는 데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경 말씀의 힘을 함양해야 한다”며, 자신의 교회에서는 매주 예배 시작부

터 성경을 암송하게 한다고 말했다. “성경을 열 구절 정도만이라도 암송하며 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자기 마음 속에 늘 성경 구절이 들어 있어서 사람을 볼 때,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무언가 손이 모자랄 때 성경을 잡게 된다.”

성경을 암송하면 나타나는 변화로 첫째, 죄를 이기게 되고, 둘째, 평안과 뚜렷한 확신을 얻게 되며, 셋째, 자신의 가치를 알게 되며, 다른 사람의 가치도 존중하게 되어,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성경을 암송하고 묵상하면 마음의 평안과 뚜렷한 확신을 얻게 된

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사편 119:105). “그 어떠한 책도 성경을 주월할 수 없다. 성경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헬로십 교회가 되어야 한다.”

“성경을 암송하면, 내 가치를 알게 된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진 하나님만큼의 존재인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넘어짐이 없고 쓰러지지 않는다. 또 나와 똑같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

“나를 포함한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가치인 것을 깨닫고, 사랑해 줘야 하고, 그를 위해 살아야 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 사람의 가치를 아시니까, 온 나라에 퍼져 있는 선교사님들이 아낌 없이 자기 목숨을 드림으로, 그들이 영원한 삶을 얻게 되었다.”

“내가 세상에 돌아가서, 토요일은 밤이 좋아를 부르며 돈을 버는 일보다, 하나님을 전하는 이 일이 훨씬 더 이익이라는 게 내 마음에 들어와 있다.”

그는 이어서, 신 존재 증명- 지적 설계 논증을 전개하며, 인류의 존재 목적이 성경 안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에, 성경 암송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구는 1670 km 속도로 자전하면서 해를 중심으로 다시 10만 8,000km 속도로 공전한다. 지구에서 해까지 거리는 1억 5천만 km이다. 그 궤도를 벗어나 해를 향해서 90.3km만 가면, 타기 시작한다.

38만 5,000km가 떨어져 있는 달을 향해서 192km를 가면 열기 시작한다. 지구의 대기권에는 75.5%의 질소와 20%의 산소와 기타 원자와 분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에 조금이라도 높아지거나 낮아지면 지구상에 생명체가 살 수 없다. 특히 사람은 절대 살 수 없다. 수 많은 별들이 무엇 때문에 있는가? 전체 모든 행성들이 지구를 초점으로 거리, 각도를 유지하면서서 상호보완적으로 전체 우주 만물을 운영하고 있다. 누가 하실 수 있는가?”

“사거리 신호등의 체계를 중앙 관제 센터에서 관리하지 않으면 그 신호가 바뀔 때마다 사고가 난다. 사람들은, 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통제하는 곳이 있다는 것은 믿으면서 우주 천지, 우주 만물은 그냥 그저 돌아간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온 천지 우주 만물이 지구를 향해, 지구 안에 있는 생명체, 특히 사람이 숨 쉬며 살게 해 주었을까, 그 이유가 성경 말씀에 뚜렷하게 적혀 있다. 이걸 암송하라는 것이다. 성경을 암송하고 묵상하지 않으면 이걸 알 수가 없다.”

아파도 숨을 쉬지 않으면 죽듯, 영적인 세계도 똑같다

말씀을 늘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에 탁월한 사람들 역시, 그것이 쉬웠기 때문이나 특별한 은사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생명이기에 붙들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말씀을 늘 암송하고 묵상하는 일에 대해서 탁월한 사람들 볼 때

마다, ‘그 사람은 말씀 읽기와 기도하기가 쉬워서’, ‘그에게는 그런 특별한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착각은 금물이다. 숨을 쉴 때마다, 비명이 나올만큼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을지라도, 중요한 건 그렇게 고통스럽지만 그 아픔 중에 숨을 쉬지 않으면 죽으니까 숨을 쉴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도 똑같다. 고통이 수반되고 아픔이 동반된다. 하루 종일 무슨 일을 해도 계속해서 말씀을 떠올린다. 매일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한다. 그럼에도 인간이기 때문에 세사적 마음이 들어온다. 나는 내가 어떤 인간인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매일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하고, 성경 말씀을 거둬 암송하고 묵상해야 한다.”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지 않으면 죽는다. 살아도 살아 있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소멸한다. 묵상해야,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친구 사이에, 신앙의 동지들, 그리고 교우들과 관계에서 우리는 상대에게 도움을 줘야 할 부분과 한 개인을 자연 그대로, 곧 그 사람 그대로를 인정해 주어야 할 부분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신앙, 의리,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상대 영역에 자주 침해해서 결국 그 사람의 고유한 개성과 자유를 잃게 해서는 안 된다.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 속에 사는 것이다. 하나님을 붙잡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고 있는 것이다.” 주디 한 기자

솔로몬대학교 제 25회 졸업식 및 학위수여식

솔로몬대학교(총장 백지영 박사)가 24일(토) 제 25회 졸업식 및 학위수여식을 개최하고 기독교 상담학 박사 2명, 신학박사 1명, 기독교 음악 박사 2명, 목회학 석사 4명, 신학학사 6명 총 15명에게 학위를 수여했다.

졸업식은 백지영 총장이 사회, 남가주교회 증경회장 지용덕 목사의 설교, 피종진 총재의 축사, 유나이티드신학대학장(원) 총장 권다니엘 박사의 권면, 남가주목사회 증경회장 김재연 목사의 축도 등이 있었다. 김민선 기자



솔로몬대학교 제 25회 졸업식 및 학위수여식.

제7회 청소년 무료 연합수련회

제7회 청소년 연합수련회가 “여호와를 신뢰하라(Trust in the Lord)”는 주제로 6월 16일(월)-18일(수)까지 나성순복음 국제음식기도원에서 개최된다. 대상은 한인 청소년 선착순 100명이며, 등록은 6월 7일(토)까지이며 무료이다.

이번 수련회에는 콜라이드 시티 처치(Collide City Church) 담임 텔 어거스타(Del Augusta)목사가 강사로 참여하며, 제프 바우더스(Jeff Bowders, Drum Professor of Musicians Institute), 켄 정



(Head of Growth Engineering of Hey-Gen AI)이 세미나를 이끈다. 문의: 323-913-4499, lafgc@gmail.com 주소: 나성순복음 국제음식기도원 30250 Gunther Rd, Romoland, CA



아버지 밥상교회(홀리스미션)


홀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력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디 고 목사 T.(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2

기독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교문 :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번호사 : 정찬웅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T.(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55 Wilshire Blvd, #480, Los Angeles, CA 90010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2025년도 여름학기〉

신입생 | 편입생모집

실시간 인터넷 화상강의(Zoom)를 통하여, 전세계 어느곳에서나 함께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본교
지원시
특전

- 1) RPCA 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목회자나 선교사님들 혹은 그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 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 신학학사과정 (B.Th) | 128 학점
- 목회학석사과정 (M. Div) | 96 학점
- 목회학박사, 교육학박사, 신학박사, 철학박사과정

상담전화 | 213-272-6031

*청강을 원하시는 분들은 각 과목당 \$100씩으로 청강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학위수여식에 초대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는 또 한 해의 결실을 맺으며 **2025년도 학위수여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본교 이사회와 교수진, 그리고 졸업생 일동은 귀하를 진심으로 초대하오니 자리를 함께하시어 졸업생들의 앞날에 **기도와 축복으로 동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격려와 사랑이 다음 세대 사역자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학위수여자

B.A: 신영, 박성진, 김철웅, 박미영, 김성은, 김하식
M. Div: 서진권, 김우연, 이종숙, 박춘혜, 김진중, 박선우, 김진영, 서유리
Th. M: 안정희, 서봉건, 김인청, 이원철, 박수철
D. Min: 피터원 | Th. D: 양승수 | 명예신학박사: Joey Baltaxar

일시: 2025년 6월 14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

장소: LA찬양교회 본당

3401 W 3rd St. Los Angeles, CA 90020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439 S. Western Ave #100 L.A, CA 90020 | TEL:213-272-6031



센터메디컬 클리닉
플러튼 지역
가정의학 전문의

나 조이스리 는 센터메디컬그룹을 선택합니다

하루에 몇 명을 진료했는지보다, 환자 한 분 한 분과 **진정성** 있게
마주하는 진료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

특히, 쉽게 털어놓기 어려운 고민을 안고 계신 **어머님들**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마음을 나누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센터메디컬그룹**과 함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주 한인 사회에 조금이나마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하고,
의사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714-519-3024

1995 W Malvern Ave, Unit A
Fullerton, CA 92833



센터메디컬 클리닉
LA동부 지역
가정의학 전문의

나 송홍우 는 센터메디컬그룹을 선택합니다

LA 동부 지역에 계신 시니어분들에게 **가까운 곳에서,**
같은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는 의사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안심**이 되는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께서 제 지식과 진심이 **마음의 위로**가 되었다는
말씀을 해주실 때마다 제가 **오히려** 더 감사한 마음을 느낍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부모님을 대하듯 따뜻한 마음으로
환자 한 분 한 분을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626-363-4661

19115 Colima Rd, Unit 105
Rowland Heights, CA 91748



센터메디컬 클리닉
가든그로브 지역
내과 전문의

나 임유일은 센터메디컬그룹을 신뢰합니다

저는 **의사의 역할**이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몸과 함께 **마음까지 어루만지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특히 만성 통증이나 턱관절 문제로 오랜 시간 삶의 질이 떨어진 채
지내오신 분들이 **보톡스**와 **PRP 주사치료**를 통해 편안함을 되찾고,
다시 일상을 살아내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 회복의 여정을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과 감사함을 느낍니다.

환자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따뜻한 진료**를 실천하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714-583-8569

12372 Garden Grove Blvd.
Unit B
Garden Grove, CA 92843



센터메디컬 클리닉
OC 지역
정신과 전문의

나 고제득 은 센터메디컬그룹을 신뢰합니다

한국과 미국, 두 문화 속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으며 자라온 1.5세로서,
비슷한 아픔을 가진 분들의 이야기에 늘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울, 불안, 조울증 같은 감정의 파도 속에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또 치매, 수면장애, 공황과 같은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지친 분들까지,
그 아픔을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곁에서 함께하고 싶습니다.

환자 중심의 따뜻한 진료, 그 **삶에 온기**를 더하는 길을
저는 지금 **센터메디컬그룹**에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플러튼 지점 714-519-3024
가든그로브 지점 714-583-8569
로렌하이츠 지점 626-363-4661

© 센터메디컬그룹

“세계선교, ‘서구-비서구 남-북반구’ 협력 시대”

KWMA 한국 선교 대표단 영국.유럽 방문 및 3차 COALA 대회 기자간담회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가 29일 오후 서울 KWMA 사무실에서 ‘KWMA 한국 선교 대표단 영국과 유럽 방문 및 3차 COALA 대회에 관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앞서 강대홍 사무총장(KWMA), 한철호 선교사(미션파트너스) 등은 지난 5월 16 - 20일 폴란드 비스와에서 열린 European Leadership Forum(ELF)에 참석해 유럽 교회와 선교 협력을 논의했다. ELF는 유럽 복음주의자들의 재복음화와 다음세대 리더 양성을 목표로 한 대규모 포럼으로, 약 900명의 교회 및 선교 지도자들이 참여했다.

한국 대표단은 유럽 지도자들과 이틀간 선교적 대화를 나누었으며, 유럽 측은 세속화로 인한 교회의 위기와 복음 회복의 필요성을 공유했다. 유럽 교회는 제4차 로잔대회를 섬긴 한국교회의 역할에 감사하며 선교적 도움을 요청했다. 한국 측은



KWMA가 KWMA 사무실에서 ‘KWMA 한국 선교 대표단 영국과 유럽 방문 및 3차 COALA 대회에 관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선교의 다중심적 전환과 협력을 강조하며, 한국과 유럽 간 선교 협력 및 남반구와 북반구 간의 연대 필요성을 제안했다. 특히 난민 사역 등 구체적 협력 사례도 제시되었다.

리더십 회의에서는 ① 한국 선교사와 유럽 현지 교회의 협력 강화 ② 북반구-남반구 간 선교 협력 촉

진을 결의하며, 글로벌 선교의 새로운 방향성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글로벌 선교 판도 속 남미 교회 중요한 주제로 부상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강대홍 사무총장은 “폴란드 비스와에서 열린 ELF에는 약 1,600명의 남미 참가자

와 50여 명의 주요 국제 선교단체 리더들이 모였다. 등록비만 650달러에 왕복 항공료까지 합해 개인당 최소 1,000달러 이상을 부담하고도 자비로 참석했을 정도로 남미 교회의 선교 열정이 뜨거웠다. 이는 ‘가난한 남미’라는 통념을 깨면서, 글로벌 선교 판도 속에서 남미 교회가 이미 중요한 주제로 부상했음을 보여주었다”고 했다.

이어 “라틴아메리카는 선교지가 아니라 선교사를 파송하는 지역”이라는 결의를 공식 채택했다. 또한 향후 서구 교회 중심의 협력 구도를 넘어, 한국을 비롯한 비(非)서구 선교운동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듯, 유일한 외국인 기조연설자로 한국 KWMA 사무총장이 초청돼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서구-비서구 협력’ 시대 개막을 선언하는 행보로 평가된다”고 했다.

기존 방식 고수...국제 무대에서 고립

“ELF 이후 한국 대표단은 영국(웨일즈·옥스퍼드)과 폴란드로 이동해 유럽 복음주의 지도자들과 연쇄 간담회를 갖고 ‘남·북반구 다중심(Global Polycentric Mission)’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교회·선교계가 기존 방식만 고수하면 국제무대에서 고립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참가자들은 오는 11월 브라질 대규모 선교대회(약 2,000명 예상)와 COALA 네트워크를 계기로, 한국교회가 사역을 재편·업그레이드하고 라틴·아프리카·아시아 및 유럽 교회와 대등한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고 결의했다.”

한편, 기자간담회는 이어 한철호 선교사가 ‘폴란드 ELF’, 한충희 본부장이 ‘영국 옥스퍼드’, 문창선 선교사가 ‘파나마 코알라’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최승연 기자

“차별금지법 등 힘으로 해결보다 종교계와 대화를”

미래목회포럼, '새 대통령에 바란다' 성명

미래목회포럼(대표 황덕영 목사, 이사장 이상대 목사)이 4일 ‘새 대통령에 바란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포럼은 “새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정당 간의 첨예한 대립, 세대와 지역 간 갈등을 벗고 통합과 협치 정치의 모범을 보여주길 바란다”며 “특히 한국교회가 염려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사립학교법과 같은 문제를 힘으로 해결하기보다 종교계와 대화로 풀어가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 전문.

새 대통령에 바란다

대한민국이 제21대 새 대통령으로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를 선출한 것은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새로운 대통령은 국민의 이러한 열망을 겸허히 받아들여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미국의 관세 압력과 경제적 불황을 극복하고 국민에게 경제적 부흥과 평화적인 삶을 제공해야 하는 사명 앞에 놓여 있습니다. 게다가 경색된 남과 북의 관계를 다시 평화와 공존의 관계로 회복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새로운 우리 정부

의 출범과 함께 미국은 철강을 비롯한 대미 수출 관련 품목의 관세를 강하게 압박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전망과 더불어 한미 관계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내수시장이 얼어붙어 경제전망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풀어야 하는 첫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특히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뢰 관계가 무너진 남과 북의 지도자들이 대화와 타협으로 신뢰 관계를 회복하고 보건의료와 같은 협력 가능한 분야부터 남과 북의 민간인들이 서로 교류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남과 북의 종교인들이 한반도 평화와 발전을 위해 기도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기를 기대합니다.

한국교회는 새로운 대통령이 국민통합을 위해 힘써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동안 선거 과정에서 드

러난 정당 간의 첨예한 대립, 세대와 지역 간의 갈등을 벗고 통합과 협치 정치의 모범을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한국교회가 염려하는 차별금지법과 사립학교법과 같은 문제를 힘으로 해결하기보다 종교계와 대화로 풀어가기를 촉구합니다.

한국교회는 새로운 대통령이 국정을 원활히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협력할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치유하는 사역과 하나님 나라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미래목회포럼 대표 황덕영 목사.

올리브 트리 크리스천 아카데미

썸머 스쿨 모집

올리브 트리 크리스천 아카데미(Olive Tree Christian Academy: OTCA)가 썸머 스쿨 학생을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1-12학년이며, 썸머 스쿨은 6/16-7/25(월-금) 6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된다. 등록비 및 진단검사 & 인터뷰 비용(\$50), 교재비 및 특별활동비는 별도이다.

OTCA는 UCLA와 USC에서 캠퍼스 선교를 하던 김수미 목사가, 그가 가르쳤던 학생들이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이 태어나면서 그 자녀들을 성경적 세계관으로 교육하기 위해 시작한 크리스천 학교이다.

OTCA의 수업은 A.C.E. School of Tomorrow 커리큘럼을 사용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자기 주도적 학습 방법으로 진행되며, 소수의 학생들에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하루 학교 일과는 예배와 말씀,



기도로 시작되며, 이 외에도 부모님들과 정기적인 소통과 만남, 월례 기도회를 통해 가정과 학교, 교회가 학생들의 교육을 함께하고 있다.

또한 이 학교는 2025년-26년도 정규 학생도 모집하고 있다. 주소: 3470 Wilshire Blvd STE 300, Los Angeles, CA 90010 웹사이트: www.launitedchurch.com/ko/otca 문의: 213 999 4209, uccshine@gmail.com



TALBOT
SCHOOL OF THEOLOGY
BIOLA UNIVERSITY

미국교수와 한국교수의 콜라보!
신학/목회학 석사 100% 온라인 수업

목회학 박사(캠퍼스 인텐시브)

MA in Christian Ministry & Leadership : 총 49학점
MDiv (목회학 석사과정) : 총 79학점
- 100% 온라인 수업
- 연간 3학기제 운영: 봄학기, 여름학기, 가을학기
- 학기별 16주 운영
- 학기당 3학점 두 과목 이수 가능 (연간 18학점 수강 가능함, 사역실습은 별도)
- 매주(총16주간) 미국인 담당교수의 동영상 강의 시청
- 한국인 교수의 실시간 온라인 수업
- 한국인 교수의 수업 내용(수업 주제 리뷰 + 발표 + 퀴즈풀이 + Q&A)



Ed Stetzer, Ph.D.
탈봇의 교수진은 보수적 복음주의적 신학 입장에서 신학도들과 사역자들을 양성해 왔습니다. 탈봇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양성하고,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세상과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탈봇에서 신학교육을 받아야 하는 7가지 이유

1. ATS/WSCUC 정회원교로서 기독교 정신과 학문적 수준을 갖춘 최고 수준의 신학대학원입니다.

2. 성경의 무오성을 주장하는 보수적 복음주의 신학의 선두주자입니다.

3. 교수진은 보수적 복음주의 신학을 고수하며, 저명한 학위와 학술 작품을 발표한 학자들입니다.

4. 바이올라 대학교에 소속되어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며 재정적으로 안정된 신학대학원입니다.

5. 신학 교육의 혁신을 통해 영성형성을 토대로 하는 전인적 교육을 실시합니다.

6. 초교파 신학교로서 성경강해를 바탕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 제자도에 집중합니다.


7. 신학지식 뿐 아니라 인격과 영성, 사역을 경험할 수 있는 진정한 배움의 장입니다.



모집 요강



(미국) 913 202 4084, (한국) 010 3024 5958



korean.masters@biola.edu



biola.edu/talbot-korean

교수소개 Faculty

* 아래 교수진은 석사 과정 강의자 중심이며 탈봇에는 그 외에 더 많은 교수진이 있음



Minsoo Sim, Ph.D./ Th.D
Professor of Christian Education & Practical Theology, Director



Eddie Byun, D.Min.
Associate Professor of Christian Ministry



Benjamin C. Shin, D.Min.
Associate Professor of Christian Ministry and Leadership



Clinton E. Arnold, Ph.D.
Research Professor of New Testament



John Coe, Ph.D.
Professor of Spiritual Theology



Sunny Song, Psy.D.
Associate Professor of Christian Ministry and Leadership



Daniel E. Kim, Ph.D.
Associate Professor of Old Testament and Semitics



Scott Rae, Ph.D.
Professor of Philosophy and Christian Ethics



Gary Manning, Ph.D
Professor of New Testament Language and Literature




Joanne Jung, Ph.D.
Professor of Biblical and Theological Studies



Ashish J. Naidu, Ph.D.
Professor of Theology



Mark Saucy, Ph.D.
Professor, Department of Theology



Doug Geringer
Associate Professor of New Testament Language and Literature



Kevin Van Lant, Ph.D.
Associate Professor of Christian Ministry and Leadership




Rob Price, Ph.D.
Associate Professor of Theology



Kenneth C. Way, Ph.D
Professor of Old Testament and Semitics



Ryan S. Peterson, Ph.D.
Associate Professor of Systematic Theolog



R. Scott Smith, Ph.D.
Professor of Christian Apologetics



Kyle Strobel, Ph.D.
Associate Professor of Spiritual Theology



Uche Anizor, Ph.D.
Professor of Theology




Karin Stetina, Ph.D.
Associate Professor of Theological Studies



Jeannine Hanger, Ph.D.
Associate Professor of New Testament



Dominick Hernández, Ph.D.
Associate Professor of Old Testament and Semitics



J P Moreland
Distinguished Professor of Philosophy

PEMF 와 Tera Hertz 테라헤르츠가 만나다! 테라 P-90
세계 최초의 최첨단
신기술을 이용한 30분의 기적!
무료체험하러 오세요!



자연요법, 대체 의학, 예방 의학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 전문가들의 추천

우주인에게 사용되는 PEMF, 생명의 빛 테라헤르츠파로 생성된 올리라이프 테라P-90
PEMF(지구자기장) + THz(빛 파장) + Earthing (땅 에너지) 가 결합된 제품

- 1. PEMF 전자기 펄스를 발생, 발바닥에서 온 몸으로 열에너지 전달 혈액순환촉진에 도움
- 2. 테라헤르츠파가 피부에 침투하여 인체의 미세순환을 활발하게 해주는데 도움
- 3. 땅에 어싱한 것처럼 전자를 유입하여 활성산소를 중화하는데 도움을 줌

PEMF란?

지구자기장으로 NASA에서 우주인의 건강을 위해서 개발된 기술이기도 합니다.
우주에서 장기간 머무는 비행사들은 지구자기장의 영향권 밖에 있기 때문에 뼈와 근육의 손실이 심하게 됩니다. 이러한 우주비행사들의 회복을 위해 사용되어 왔습니다. 10여년 전만해도 지구로 귀환하는 우주비행사들은 90일간 PEMF를 받아야 했습니다. 우주에서 머무는 동안 근육손실과 뼈의 악화 등에서 정상적으로 회복되도록 PEMF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테라P-90의 의미도 최소한 90일간의 PEMF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테라 P-90을 30분 사용시 얻을 수 있는 동일한 성과

- 2시간 운동 성과 (근육활성)
- 부항 20회 (혈액순환)
- 훈욕 1시간
- 땀 10회 (체온상승)
- 마사지 30회
- 피부 스킨링 60회 (리프팅)

테라 P90의 효과

- 세포에너지 생성에 도움
- 통증과 염증에 도움
- 피로에 도움
- 혈액순환과 산소공급에 도움
- 면역건강 보조
- 안티 에이징에 도움
- 신진대사에 도움
- 뇌건강과 인지능력 증가에 도움
- 시력향상에 도움
- 독소배출(림프)에 도움
- 우울증/스트레스에 도움
- 폐와 신장기능강화에 도움
- 수면장애에 도움
- 지방연소에 도움

FDA, SGS, OPMS, ISO 세계적으로 특허 및 승인 받은 제품 158개국에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제품 하나의 디바이스로 온가족이 함께!
테라헤르츠와 PEMF의 시너지, 최첨단 건강 혁신! 두 가지 혁신 기술의 만남으로 완벽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세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체험수기

“저는 한의사로서 다양한 치료법을 경험해왔습니다. 테라 P-90을 사용해본 결과, 정말 놀라운 효과를 느꼈습니다. 이 기기는 깊은 조직까지 침투하여 통증을 완화하고, 빠른 회복을 지원합니다. 특히 관절염 환자들에게 통증 완화와 기능 회복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테라 P-90은 비침습적이며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 환자들에게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 Y*** 한의사

“정형외과에서 테라 P-90을 도입한 이후, 환자들의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수술 후 회복과 근골격계 질환의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전자기장이 깊은 조직에 작용하여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시켜주며, 치료 효과를 빠르게 증진시킵니다. 실제로 환자들이 치료 후 더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하는 모습을 보면서, 테라 P-90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 J***** 정형외과 의사

“테라 P-90은 물리치료에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빠른 회복을 지원합니다. 제 환자들이 테라 P-90을 사용한 후, 통증이 줄어들고 운동 범위가 확장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치료 세션에 테라 P-90을 포함시키는 것은 환자들의 재활 과정을 크게 개선시키는 방법입니다.” - M** 물리치료사

“피부과에서 테라 P-90을 사용하여 염증성 피부 질환과 상처 치유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전자기장이 피부 깊숙이 작용하여 염증을 완화하고 세포 재생을 촉진시킵니다. 환자들의 피부 상태가 개선되고, 치료 후 회복 속도가 빨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피부 건강을 위한 혁신적인 치료 도구로 테라 P-90을 추천합니다.” - L** 피부과 의사

grace.olylifeglobal.com 웹사이트 주문 후 2주 후 물건도착
문의 213-434-1170 무료체험 (오시기전 예약필수 월~목 : 오전 11시 ~ 오후 2시)
3055 Wilshire Blvd #480 ., LA, CA 90010

* 건강 비즈니스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건강과 비즈니스 기회를 원하시면 지금 연락주십시오.

PCUSA “올해 말까지 교인 1백만 명 이하로 감소”

미국 최대 장로교 교단인 미국 장로교회(PCUSA)의 교인 수가 올해 말까지 1백만 명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한 보고서가 밝혔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PCUSA 통합 임시 기관이 교회 통계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2024년 4만 9천여 명의 교인이 감소했으며 2023년에는 교인이 1백9만 4천여 명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백4만 5천여 명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2024년 활동 교인 수는 2021년 보고된 것보다 약 15만 명 감소했고, 교회 장로 수는 2021년 약 5만 6천9백 명에서 지난해 5만1천4백 명으로 감소했다.

또한, 회원 교회 수는 2023년 8천5백72개에서 2024년 8천4백32개로 140개 감소했다.

그러나 재정 기부는 늘어났으며, 교단에 대한 정기 기부금은 2023년 약 18억 2백만 달러에서 작년에는 약 22억 6천만 달러로 늘어났다. 또한 지난 몇 년 동안 세례 건수도 증가했다. 세례 건수는



미국 켄터키주 루이빌에 위치한 PCUSA 본부. ©earth.google.com

2021년 7천5백11건에서 2024년 7천8백26건으로 증가했다. 교단은 ‘논바이너리/젠더퀴어’로 규정하는 교인 수가 2023년 1천5백47명에서 2024년 1천7백28명으로 약간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보고서 작성을 감독한 팀 카갈목사는 PCUSA의 공식 매체인 장로교뉴스서비스(PNS)에 현재의

감소 추세대로라면 올해 말까지 교단 회원 수가 1백만 명 이하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PNS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이정표’ 수치처럼, 이 수치 역시 분명 많은 관심을 끌 것이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며 “하지만 순순실이 모든 것을 말해주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는 “전반적인 미국 사회 추세는 교파와 신앙 전통을 초월하여 종교 참여가 감소하고 있지만, 그러한 맥락에서도 PCUSA는 사람들을 기독교 공동체로 계속 인도하고 있다”라고 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PCUSA는 교인 수와 활동하는 교회 수가

상당히 감소했다. 2000년에는 250만 명이 넘는 교인이 있었지만, 현재는 1백만 명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급감했다.

지난해 11월, PCUSA는 교단의 쇠퇴로 인해 직원을 감축하고 기관과 사역을 간소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CP는 “이러한 쇠퇴의 한 요인은 교단의 신학적으로 진보적인 방향

으로 인해 수백 개 교회가 항의의 표시로 PCUSA에서 탈퇴했다”라고 전했다.

지난 2010년 PCUSA 총회가 지역 기관이 독신이 아닌 동성애자를 성직자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허용안을 투표로 통과시켰을 때, 이 결정으로 인해 약 3백 개 교회가 교단을 떠나 신학적으로 보수적인 ‘ECO:A Covenant Order of Evangelical Presbyterians’를 결성하기로 투표했다.

2012년 발표된 수치에 따르면 PCUSA는 2011년 교인 수가 2백만 명 아래로 떨어졌으며, 당시 PCUSA 정서기였던 그래디 파슨스는 당시 성명을 통해 “(적어도) 두 가지 어려움 때문에 교인 수가 줄어들었다”라고 밝혔다.

그는 2012년 “가장 중요한 필요는 대명령을 실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강화하는 것”이라며 “두 번째는 점점 더 늘어나는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미경 기자

美 교회들, 韓 대선 성명… “공산주의 장악하면 기독교인들 위험”

삼권분립 · 헌법 질서 훼손에 성경적 목소리 내야
친공산 카르텔,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하려 해
한국에 종교 자유 · 자유민주 체제 확립되길 기도

미국 글로벌복음주의교회연합(Global Evangelical Churches of America, 이하 GECA)가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 성명을 27일(한국 시간) 발표했다. 이 성명은 미국 남침례교회 목회자이며, 사우스웨스트대학교 석좌교수인 케빈 월드롭(Kevin Waldrop) 박사가 발표했다.

GECA는 미국의 복음적 초교파 교회연합이다. 매해 미 남침례교회들을 중심으로 연합된 복음적 초교파 교회들이 함께 올네이션스연합기도 컨퍼런스와 국제선교대회를 주관하고 있다.

GECA는 이번 성명에서 “미국 교회는 한국교회의 생존과 대한민국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믿는다”며 “한국교회들이여, 깨어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 나서라(엡 6:10~20)”고 했다.

이어 “한국교회는 모든 거짓, 허위 선동, 악행과 불의로부터 자유민주주의, 국민, 그리고 국가를 지키는 의무가 있다(엡 4:24~25)”며 “한국교회는 삼권분립의 헌법 질서를 훼손하고 국민의 행복과 자유를 억압하는 테러 정치에 맞서 행동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성경적 목소리를 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의 더불어민주당이 한국 국회에서 독재적인 입법을 통한 전체주의적인 테러 정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140년 전 한반도에서 선교 사역을 시작한 미국 교회들은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거짓과 불의, 그리고 불법에 맞서 복음을 위해 일어서기를 촉구한다(약 4:7)”며 “한국교회와 국민



미국 글로벌복음주의교회연합의 한국 대선 관련 성명을 발표한 케빈 월드롭 박사 ©글로벌복음주의교회연합

들은 더불어민주당과 언론, 노동조합, 입법부, 사법부, 경찰, 군대, 학교 및 기타 친공산주의 단체들로 구성된 카르텔로부터 나오는 친북·친중 공산주의 선전에 속아서는 안 된다. 이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미국교회들은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이 현재 한국의 위기가 영적 전쟁이며,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기를 기도한다”며 “우리는 그들이 성경적,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위기를 다룰 수 있기를 기도드린다”고 했다.

또한 “우리 미국 교회들은 한국의 친공산주의 세력들이 주장하는

거짓된 평화와 거짓된 ‘평화통일’에 속지 않기를 기도드린다”며 “공산주의가 한국을 장악하게 되면 수백만 명의 기독교 신자들이 해악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GECA는 “한국교회들은 중국 공산당의 보안법 감시 및 통제 시스템 하에서 홍콩의 모든 자유가 어떻게 억압되는지 살펴보고 확인하기를 촉구한다”고도 했다.

이들은 “한국에 종교의 자유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확립되기를 기도한다”며 “한국 기독교인들은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위해 투쟁하고 한국 더불어민주당의 거짓 선전에 대항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한국교회와 국민들은 6월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를 포함한 부정선거 조작 시도를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며 “6월 한국 대통령 선거의 영적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 투표하여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제를 수호하는 것은 한국 교회와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의무”라고 했다.

김진영 기자

밴쿠버헤브론교회 담임목사 청빙공고

밴쿠버헤브론교회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성령의 능력으로 열방을 품는 미라클 센터로 성장하는 교회로 캐나다 BC주의 Langley에 소재하는 교회입니다. 본 교회는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서북미 노회에 속해 있습니다. 1대 목사님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반석위에 세워진 저희 교회가 귀한 영혼 구원의 더 큰 꿈과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발전시키는 사명을 잘 감당하실 새로운 목사님을 아래와 같이 청빙하고자 합니다

지원자격

- ▶KAPC 교단 소속 목회자 또는 가입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 ▶본 교단에서 인정하는 정규대학과 신학대학원(M.Div.)졸업하신 분
- ▶전임사역자 이상 목회경력 5년 이상인분(만40세 이상 - 만 55세 미만)
- ▶캐나다 영주권 또는 동등 이상으로 캐나다내 취업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 ▶한국어 및 영어 설교가 가능하신 분

접수방법

- ▶이메일: hebronchurch2026@gmail.com
- ▶주 소: 6656 Glover Road, Langley, BC V2Y 0W9
- ▶문 의: 청빙위원장 서해철 장로, 총무 전문성 장로 (이메일 문의만 가능함)

제출서류

- ▶국문 및 영문 이력서(학력, 경력 및 가족관계 포함 및 가족사진 첨부)
- ▶자기소개서(신앙고백과 목회경험, 성장배경, 자신의 목회 비전에 영향을 끼친 책이나 목회자 포함)
- ▶목회자 2인의 추천서(추천인 연락처 포함, 추천서는 추천인이 본 교회 청빙위원회로 직접 발송)
- ▶졸업(학위) 증명서(학사 및 석사)
- ▶본 교단의 노회에서 발행한 안수 증명서
- ▶최근 국문 및 영문 설교영상 2부 및 설교문 2부(Youtube링크 가능)
- ▶모든 서류는 Pdf Format으로 제출

제출마감

- ▶서류접수 마감일: 2025년 7월 12일 자정까지
- ▶제출된 서류는 비밀이 보장되며 검토 후 반환하지 않고 폐기합니다

밴쿠버 헤브론교회 청빙 위원회

홍콩, 2019년 시위 이후 기독교인 46,000명 해외로 떠나



한국선교연구원(kriM) 6월 세계 선교 기도 제목

모든 기독교인을 세계 선교에 참여하도록 돕는 4단계 모델

지난 4월, OMF와 Frontiers 선교회 소속으로 오랫동안 활동해 온 스타인하우스(Steven P. Steinhaus) 선교사는 선교 저널 EMQ에 기고하면서 ‘기도하라-주라-가라’의 선교 방식을 넘어서 신자들이 세계 선교에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4단계 모델을 제안했다.

전 세계 85개국 ‘성경에 대한 인식’ 조사 영국성서공회(Bible Society)는 세계 성서공회연합(United Bible Societies)과 협력하여 전 세계 85개국에서 91,000명을 대상으로 ‘성경에 대한 인식’(World Bible Attitudes Survey)을 조사했다. 인간개발지수 증가율, 3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둔화해

5월 6일에 유엔개발계획(UNDP)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0-2021년의 코로나 위기 이후 지속적인 회복세를 보이던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가 1990년 이후로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량 위기로 사망 위험에 처한 인구 3억 명에 가까워

5월 16일에 발표된 세계식량위기보고서(GRFC)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급성 식량 불안에 처한 사람의 수가 6년 연속 증가하여 2억 9,530만 명에 달했다. 지난해 분쟁 지역에서 의료 시설 공격 3,600건 이상 발생

분쟁지역의료안전보장연합(SHCC)에서 5월 19일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분쟁 지역에서 의료진과 병원을 목표로 한 공격이 3,623건으로 조사됐고, 이는 2023년에 비해 15%가 증가한 수치이다.

미국: 1837년에 설립된 장로교세계선교회(PWM) 사역 마감해

지난 3월, 미국장로교(PCUSA) 산하 해외선교위원회로 설립됐던 장로교세계선교회(PWM)가 사역을 마감했다. 선교회는 1837년에 설립되어 2010년까지만 해도 200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원해 왔다.

남미: 2025 이베로-아메리칸 선교대회에 1,600명 모여

이베로-아메리칸 선교대회(COMI-BAM 2025)가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파나마시티(Panama City)에서 개최됐다. “이동하는 교회를 향한 동일한 사명”(The same mission for a Church on the move)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25개국에서 1,600명 이상이 참석했다.

남미: 화재로 인한 열대 우림 손실

2024년에는 기후 변화와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 덥고 건조한 기후가 광범위하게 발생했고, 이는 곧 화재로 이어졌다.

4월 29일, 페루 출신의 선교학자인 에스코바(Samuel Escobar) 박사가 91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1934년 페루 아레키파(Arequipa)에서 태어난 에스코바 박사는 남미 교회와 신학의 특유한 관점에서 선교학적 통찰을 발전시키는 데 평생 바쳤다.

〈아시아〉

중국: 외국인의 선교 활동 제한 강화돼

중국 정부는 5월 1일부터 외국인의 선교 활동에 대한 새로운 제한 조치를 시행했다. 국가종교사무국이 발표한 “외국인 종교 활동 관리에 관한 시행규칙”에 따르면, 외국인은 합법적으로 승인된 종교 장소에서만 종교 활동을 할 수 있고, 정부 승인 장소라 할지라도 집단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홍콩: 2019년 시위 이후 기독교인 46,000

명 해외로 떠나

2019년 초, 홍콩 행정부가 도입하려 했던 범죄인 송환법으로 인해 촉발된 시위는 당해 6월 200만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시위로 확대됐다.

미얀마: 안전한 곳 찾아 바다로 탈출하던 로힝야족 427명 사망해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지난 5월 두 차례에 걸쳐 로힝야족(Rohingya) 난민들이 안전한 곳을 찾아 바다로 탈출하다가 427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것으로 밝혀졌다.

인도: 인도선교협회, 오디샤주에서 여성 사역자 컨퍼런스 개최해

지난 1월 말, 인도선교협회(IMA)는 오디샤(Odisha)주에서 이들 동안 여성 사역자를 위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인도 · 파키스탄: 카슈미르 갈등, 물 분쟁으로 확대되고 있어

4월 22일, 인도령 카슈미르(Kashmir)에서 총기난사 테러가 발생해 26명이 목숨을 잃었다. 인도 정부는 이 테러 공격의 배후에 파키스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5월 9일부터 파키스탄 군사 시설을 겨냥한 공격을 시작했다.

방글라데시: 임시정부가 제시한 사회 개혁안을 두고 의견 엇갈려

지난해 8월, 방글라데시에 임시정부가 세워지면서 최고 고문을 맡아 임시정부를 이끌고 있는 유누스(Muhammad Yunus)는 파괴된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사회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란: 올해 5월까지 최소 478명 사형 집행

최근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에만 이란에서 113명에 대한 사형 집행이 이뤄졌고, 1월부터 현재까지 최소 478명이 사형에 처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5%가 증가한 수치이다.

예멘: 올해 발생한 국내실향민 6천 명 중 여성 가장 26%에 달해

5월 20일, 유엔여성기구(UN Women)는 2025년 초부터 예멘의 알후다이다(Al Hudaydah) 항구와 사나(Sana) 공항을 포함해 주요 기반 시설이 공격당하면서 식량, 연료, 생필품, 의약품 등 인도적 지원에 차질이 발생했고 민간인 피해가 늘고 있다고 발표했다.

〈아프리카〉

아프리카: 구호 자금 삭감으로 모자 보건 위험성 증가 우려돼

전 세계적으로 5세 미만 사망 아동의 수는 2000년 990만 명에서 2023년 480만 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구호 자금이 줄어들면서 아프리카 국가 안에서 모자 보건 위험성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아프리카: 아프리카복음주의협회 13차 총회, 3일간 케냐에서 열려

아프리카복음주의협회(AEA) 13차 총회가 5월 21일부터 23일까지 케냐의 나이로비(Nairobi)에서 개최됐다. “아프리카 변화를 위한 단결”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총회에서 참석자들은 교파와 언어, 국가적 경계를 넘어 아프리카 전역의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할 것을 다짐했다.

튀니지: 반체제 인사에 대한 탄압 증가로 교회들 불안에 휩싸여

튀니지는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2014년에 평화로운 선거로 정권 교체를 이뤄냈다. 하지만 2021년 7월에 집권한 사이드(Kais Saied) 대통령은 튀니지 정부 당국과 반대되는 의견을 표명할 경우 반체제 인사로 규정하고, 형법과 통신법, 테러법, 사이버 보안법 등을 근거로 체포와 구금을 강화해 오고 있다.

/한국선교연구원(kriM) 제공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지역

주일에배 오전 11:00
어린이에배 주일 오후 2:00
장년기초성경공부 주일 오후 2:00

영혼의 샘 내적치유 영성집회
- 월-금 오후 7:30
- 토 오후 3:00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562)606-2345, (424)445-807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내세대에배 오전 9:15)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중보기도모임 온라인 오후 8시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만2세를 책임지며, 이만가정을 치료하며, 선교명령을 순종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Olympic & Edson 코너)
T. (213)386-2233

주일에배 오전 10:50
금요일씀과 삶 공부 오후 7:00
아침말씀예배(월-토) 오전 9:00

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0:50
2부예배 오전 10:50 새벽예배 오전 6:00 (화-금)
청소년예배 오전 10:50 토요일전새벽예배 오전 6:3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om

주일에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토) 오전 6:3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이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439 S Western, #100, LA, CA 90020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에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9: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에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를 세울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주일1부예배 오전 7:30 분당
주일2부예배 오전 9:30 분당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분당
주일4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OMC 주일학교 오전 11:30 교육관 1층

OMC 중고등부 오전 11:30 교육관 4층
OMC 소년부 오전 11:30 교육관 427호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분당
주중새벽기도회 온라인(Online)
OMC 주일학교 오전 11:30 교육관 1층

김지훈 담임목사

동양선교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 (323)466-1234 Email: omccoffe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주일예배 2부 오전 9:5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00
주일예배 4부 오후 2:00 EM Worship Sunday 2:00

김일형 담임목사

새생명오아시스교회

1041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0-7000

주일에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원 담임목사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자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90006
T. (323) 702-6709

주일예배 오전 11시
새벽기도회 오전 6시(금, 토)

김재연 담임목사

영생교회

1829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2-7356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저녁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이수호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3055 Wilshire Blvd. #220., LA, CA 90010
T. (213)387-1700 olympicch@gmail.com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라디오 방송설교
수요일예배: 저녁 7시 라디오서울 AM 1560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주일 아침 6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213) 574-9400
lordslovechristianchurch@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라티노 오후 5:0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 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초등부 주일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분당/온라인

김창섭 담임목사

세계선교교회

927 S.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213) 388-1927 www.wmclac.com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한국학교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중고등부 오전 10:50 토요새벽 오전 6:00

고광선 담임목사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 (323)735-0200 churchtheway@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중고등부 성경공부 주일 오전 9:30
대학청년부 성경공부 주일 오전 9:30

한현종 담임목사

크렌셔장로교회

1060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407-160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I(대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심자기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321-4433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주일 오전 10:00 하트교회
4500 W. El Segundo Hawthorne, CA 90250
Tel. 310-706-7721

진건호 담임목사

주일 오후 1:00 가든그로브한인교회
13411 S. Euclid St, Garden Grove, CA 92843

주일 오후 7:00 웨스트교회
439 S. Western Ave, LA, CA 90020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월-토)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오전 11:30

국윤권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리서(Calling), 고치교(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choonghyun.org

사우스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45(화-금) / 6:20(토)

이항영 담임목사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326-0300, http://rpccsc.com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윤성현 담임목사

늘푸른동산교회

17116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562) 774-7224 / evergreenhill.org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EM 1부 9:30/ 2부 11:00
중/고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김정훈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45
EM성인예배 오전 9:30

김경한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KM장년예배 오후 2:00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짐으로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cgc.org

주일1부 오전 7:45
주일2부 오전 9:45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6:00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GROEM(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후 7:30

방상용 담임목사

세리토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창 6: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402-2919 www.cmchome.org

주일1부예배 8:00am
주일2부예배 9:30am
주일3부예배 11:15am
주일교육부예배 11:00am

주일EM예배 11:00am
수요찬양집회 7:30pm
토요새벽예배 6:00am
주중새벽예배(온라인) 5:30am

정유성 담임목사

오렌지한인교회

643 W. Malvern Avenue, Fullerton, CA. 92832
T. (714) 871-8320 / www.okcc.org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한여대학창년예배 오후 2:00

김요찬양 오후 7:30
영애인예배 오전 11:30
장어장년부 오전 9:30, 11:3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 오후 3시
LA 벨가든구국대: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이우호 담임목사

CRPC 모레노밸리한인교회/LA구국재단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영애예배 오후 7:30

지영환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전 11:00(수)
중보기도회 오전 9:30(목)
제자성서 오전 9:30(금)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림학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7:00
2부예배 오전 9:00
3부예배 오전 11:30
창년예배 오후 2:00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00, 오전 11:00
일본어 예배 오후 1:15
주일학교 오전 9:00, 오전 11: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중고등부 오전 11:15
영아부 오후 1:00
KM대학창년부 오후 2:30

박신웅 담임목사

얼바인은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15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창년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월-금)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i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주일예배 1부 오전 7:45
2부 오전 9:30
3부 오전 11:30
창년(교육부)새

수요아성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평일) 새벽 5:30
(토/주일) 새벽 6:00

김종규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 제일장로교회

8500 Bolsa Ave, Westminister, CA 92683
T. (714) 899-9191 / oc1church.com

주일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 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주일 1부예배 8:00 AM
주일 2부예배 11:00 AM
새벽기도회 화-토 6:00 AM

금요찬양예배 7:45 PM
교회학교예배 11:00 AM

신용환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315-4020

LA 동부 지역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40
3부예배 오전 11:40
EM(Holy Wave) 오전 11:4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대학창년부 오전 11:40
금요성령집회 저녁 7:30(금)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우영하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구경모 담임목사

한빛장로교회

11608 Valley Blvd., El Monte, CA 91732
T. (626)444-0521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고송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5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 청년예배 오후 7:45

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말씀강해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월) 5:30 (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로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국제기독교연대 “北, 위험 무릅쓰고 복음 전하는 성도 늘어”

북한 지하교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오래된 찬송가. ©자유북한TV

북한의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인들이 늘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비밀리에 예배드리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탈북민 주일용 씨는 최근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인 국제기독교연대(ICC)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투옥, 고문, 죽음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 씨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임기 때 백악관에서 주최한 종교 박해 피해자 초청 행사에 탈북민 대표로 참석한 바 있다. 주 씨와 그의 부모는 북한 기독교 라디오 방송을 듣곤 했다. 그와 그의 가족은 탈북의 희망을 안고 무사히 남한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의 고모 가족은 가족 중 한 명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됐고, 모두 처형당했다. 주 씨는 “수용소에 대해 확실히 알려진 바는 거의 없지만, 탈북자들이 말하는 공통적인 특징은 극심한 잔혹함이다. 광범위한 강제 노동, 고문, 강간, 기아, 그리고 죽음 이 수용소 생활의 일상적인

특징으로 여겨지며, 아이들 역시 부모와 같은 처벌을 면제받지 못한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암울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이 그 나라에서 계속 늘어나고 비밀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 우리의 용감한 형제·자매들, 북한의 동료 신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들은 제자들을 세우고 있으며, 산과 언덕, 그리고 땅 속에서 예배한다”고 덧붙였다. 동료 탈북자 김 씨는 수용소 중 한 곳에서 강간과 고문을 당하면서도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 그는 ICC와의 인터뷰에서 “수용소 생활 동안 신앙이 내게 버틸 힘을 줬다. ‘예수님, 지금 저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저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당신은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라고 매일 기도했다”고 했다. 주 씨는 “박해받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다. 희망을 잃지 말라.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 싸우고 있으며, 우리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위해 싸우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는 승리했다.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 그러니 희망을 잃지 말고 굳건히 서 달라”고 당부했다.

강혜진 기자

라이프웨이 “지난 10년간 사역 사임한 목회자 비율 약 1% 불과”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미국 개신교 교회의 목회자 절반 이상을 포함해 기록적인 수의 목회자들이 정규 사역 사임을 진지하게 고려했지만, 지난 10년 동안 매년 사역을 그만두는 목회자는 약 1%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부터 5월 8일까지 실시된 이 라이프웨이 리서치 설문조사는 휴스턴 제일침례교회와 목회자 감소에 관심을 갖고 있는 직업의학과 전문의 리처드 도킨스의 후원으로 진행되었다. 이 연구의 데이터는 복음주의 교회 또는 흑인 개신교 교회에서 사역하는 약 1천5백16명의 목회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되었다. 연구원들은 사망이나 은퇴 이외의 이유로 목회직을 떠난 목회자의 비율이 1%를 약간 넘는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을 발견했다. 2015년에는 사망이나 은퇴 이외의 이유로 목회직을 떠난 목회자가 1.3%에 불과했다. 2021년에는 이 비율이 1.5%로 소폭 증가했고, 2025년에는 1.2%로 감소했다.

라이프웨이 리서치(Lifeway Research)의 스코트 맥코넬(Scott McConnell) 대표는 성명을 통해 “목회자들이 목회직을 떠나는 비율은 꾸준히 매우 낮은 수준이다. 목회직을 떠나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다른 사역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교회 안팎에서 갈등, 번아웃, 또는 도덕적 실패로 떠나는 사람들에게 집착하기 쉽다. 이러한 사례는 항상 과장되어 있지만, 교회는 이러한 결과를 막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연구에 참여한 목회자의 절반 이상인 58%가 지난 10년 이내에 현재의 목회를 시작했다고 답했으며, 15%는 최소 25년 이상 설교자로 사역해 왔다. 또한 설문 응답자의 약 52%는 첫 목회자로 사역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나머지 48%는 이전 교회에서 사역했다고 답했다. 지난 10년 동안 사역을 그만둔 목회자 중 7%는 다른 사역을 맡았고, 3%는 사역

과 관련 없는 직책을 맡았다고 보고했다. 또 다른 2%는 사역과 관련 없는 직책을 맡았고, 약 4분의 1은 다른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회자들은 전임 목회자가 목회를 떠난 이유로 소명의 변화(37%), 교회 내 갈등(23%), 그리고 번아웃(22%)을 포함한 다양한 이유를 제시했다. 약 12%는 가정 문제를 언급했다. 전임 목회자가 목회를 떠난 다른 이유로는 교회 부적응(17%), 질병(5%), 개인 재정(3%) 등이 있었다. 맥코넬 대표는 “오늘날의 목회자들은 전임 목회자가 교회를 떠난 모든 이유를 항상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전 목회자가 번아웃으로 인해 교회를 떠났다고 말하는 목회자의 수는 지난 10년 동안 두 배로 증가했다(22% 대 10%)”라고 설명했다. 2021년 10월 바나 리서치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목회자 10명 중 4명(38%)이 “전임 사역 사임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몇 달 전인 2021년 1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답한 목회자 29%에 비해 상당히 증가한 수치다. 데이터를 주류 교단 목회자와 비주류 교단 목회자로 세분화한 결과, 주류 교단 목회자의 51%가 전임 목회직을 그만두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주류 교단 목회자의 34%는 사역에 대해 이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바나 리서치의 교회 참여 담당 부대표인 조 젠슨은 당시 CP와의 인터뷰에서 목회자의 번아웃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2021년은 역대 최고치다. 솔직히 말해서 회사 차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목회자들의 전반적인 안녕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이것이 교회의 전반적인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걱정된다”라며 “건강한 교회의 핵심은 건강한 목회자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지난 한 해 동안 미국 목회자 10명 중 거의 4명이 전임 목회직 사임을 심각하게 고려했다는 것은 분명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이미경 기자

캘리포니아 대법원, 동성혼 케이크 제작 거부한 기독 제빵사 항소 기각



케이스 밀러, ©Freedom of Conscience Defense Fund

캘리포니아 대법원이 동성혼 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혐의로 처벌을 받은 기독교인 제빵사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주 고등법원은 최근 ‘캘리포니아 민권부 대 테이스트리스(Tastries)’ 사건에 대한 항소를 기각해 제과점에 대한 하급법원의 판결을 유지하도록 허용했다. 제과점 테이스트리스 사장인 케이스 밀러(Cathy Miller)를 대리하는 로펌인 베크의 아벨 케임 수석 변호사는 이 판결을 비난하면서 이는 미국 대법원의 판례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케임 변호사는 성명을 통해 “미국 대법원이 이미 두 번이나 분명히 밝혔듯이, 케이스 밀러와 같은 창의적인 전문가들은 신앙을 따르는 것과 예술을 실천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캘리포니아주는 몇 년 전 케이스에 대한 캠페인을 중단하고 그녀의 디자인을 자유롭게 내버려 두어야 했다. 우리는 케이스가 자신의 신앙에 부합하는 맞춤 제작물을 제작할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이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했다. 2017년 캘리포니아 민권부는 밀러가 동성커플의 웨딩 케이크를 만들어주기를 거부한 후, 그녀가 캘리포니아 주의 시민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그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밀러의 회사인 테이스트리

스는 ‘케이스 크리에이션’(Cathy’s Creations)이라는 이름으로도 사업을 하는데, 그녀는 동성혼에 대한 종교적 반대를 이유로 케이크 제작을 거부했다. 캘리포니아주 컨 카운티 고등법원 데이비드 램프 판사는 2018년 밀러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고, 기독교인 제빵사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램프 판사는 “수정 헌법 제1조는 종교 단체와 개인이 삶과 신앙에 매우 보람 있고 중심적인 원칙을 가르치고, 오랫동안 존경해 온 가족 구조를 이어가려는 깊은 열망을 실현하고자 할 때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10월, 컨 카운티 판사 에릭 브래드쇼는 캘리포니아주 공정 주택 및 고용부는 밀러가 차별에 가담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브래드쇼 판사는 “밀러의 유일한 동기는 언제나 성경이 결혼에 대해 가르치는 바에 대한 자신의 진실한 기독교적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었다”라며 “그 동기는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이지 않았으며, 무의미한 차이를 강조하거나 고정관념을 고착화하지도 않았다”라고 했다. 하지만 지난 2월,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 제5항소지구는 밀러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며, 제빵사가 결혼식을 위해 미리 디자인된 흰색 케이크를 커플에게 판매하기를 거부한 것은 “의도적인 차별”이었다고 판결했다. 이미경 기자

그렉 로리 목사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들 사용하신다”

캘리포니아 하베스트 크리스천 펠로우십(Harvest Christian Fellowship) 담임인 그렉 로리 목사가 최근 독일 베를린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빌리그래함복음전도협회(BGEA)가 주최한 유럽복음주의대회에서 ‘복음전도자의 은사와 소명’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강연에 앞서 크리스천데일리인 터내셔널/크리스천 포스트(CDI/CP)와 단독 인터뷰를 가졌다.

로리 목사는 2018년 고인이 된 빌리그래함 목사와 함께 점심을 먹으며 나눈 개인적인 순간을 회상하며 인터뷰를 시작했다. 그는 그래함 목사에 대해 “사도들을 제외하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아니 어쩌면 가장 위대한 전도자 중 한 명”이라고 증거했다. 그는 그래함 목사에 게 지혜를 구하며 “나이 든 빌리가 젊은 빌리에게 말을 건넌다면, 자신에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라고 질문했다고 한다. 그래함 목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 더 많이 설교하도록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고 싶다. 왜냐하면 거기에 힘이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로리 목사는 “그것을 결코 잊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을 여기 (베를린의) 전도사들에게 언급할 것이다. 왜냐하면 전도자의 메시지는 매우 단순하고 우리는 그것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로리 목사는 그래함 목사의 사역 말년에 그와 많은 시간을 보냈으며, 25년 동안 BGEA 이사회에서 활동해 왔다. 그는 그래함 목사의 전도 집회에 동행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원하며, 그래함 목사의 개인적인 요청에 따라 설교 준비를 도왔다. 빌리 그래함 목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이 특권은 그에게 “엄청난 훈련

의 시간”이 되었다. 로리 목사는 이 경험을 통해 “어떤 것들은 누군가에게서 배울 수 있지만, 어떤 것들은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마치 지구상에서 가장 훌륭한 복음주의 대학에 입학한 것 같았다. 20세기 최고의 복음주의자 중 빌리 그래함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없었기 때문”이라며 “그는 그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전했다.

로리 목사는 그래함 목사를 그리워했다. 그는 “해리 트루먼부터 (버락) 오바마까지 모든 미국 대통령의 목회자였던 탁월한 복음 전도자였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그와 같은 분이 없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때때로 사람들은 빌리 그래함 목사의 사역을 이어가고 있다거나 빌리 그래함 목사의 역할을 대신했다고 주장한다”라고 했다.

그는 “빌리 그래함 목사는 빌리 그래함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방식으로 우리 세대에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다윗에 대해 ‘그는 자기 세대에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한다. 빌리 그래함 목사도 그렇게 했다. 그는 자기 세대에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했다.

로리 목사는 교회를 출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복음주의자와 복음 전도에 특별한 은사를 받은 전도자 사이의 주류 개신교 교리를 고수한다. 그는 “복음주의자는 얼마 전 만들어진 용어로, 성경의 영감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필요하다는 등의 특정 견해를 가진 기독교인을 지칭한다. 따라서 전도자는 복음을 선포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했다.

강혜진 기자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철야기도회(마지막주) 오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EM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10
3부예배 오전 12:00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6:00, (토)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KM 주일예배 EM 주일예배 새벽예배
- 1부 07:30AM - 1부 09:00AM - 평일(월-금) 05:00AM
- 2부 09:15AM - 2부 11:00AM - 토요 예배 06:00AM
- 3부 11:00AM

김지성 담임목사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CA 91765
T. (909)396-4441 www.igmc.org

대예배 11:00 AM Youth (8th ~ 12th) 11:00 AM
아동부 (1~5학년) 11:00 AM 수요 찬양 예배 수요일 7:30 PM
유아, 유치부 (2~5세) 11:00 AM 새벽기도회 화-토요일 6:00 AM
영아부 (2개월 이하) 11:00 AM

장수영 담임목사

언약 교회

은혜의 말씀, 사랑의 돌봄

1750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622-8815 https://covenantkoreanchurch.com

주일예배(KM) 오전 10:30 중·고등부(Youth) 오전 10:30
주일예배(EM) 오전 10:30 대학청년부(College) 오전 10:30
유년부(K-2) 오전 10:30 한글학교 주일 오후 12:40
초등부(3-5) 오전 10:30 새벽예배(화-토) 오전 6:00

최현규 담임목사

주님 CHURCH

주일예배 401 S. Palm St. La Habra, CA 90631
T. (626)901-919 Email : joonim0623@gmail.com

예배시간 매주오전 11:00

강문수 담임목사

로렘나무교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13133 Le Parc #1003, Chino hills, CA 91709
T. (909) 519-0876

LA 북부 지역, 라스베가스

주일 1부 오전 9:00 주일학교 오후 12:30
주일 2부 오후 12:3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젊은이 예배 오후 2: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밭에 동아여 내 길에 빛이이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1부예배 오전8:00 중·고등부(가리솔) 오전11:00
주일2부예배 오전11:00 영아부예배(민음채움) 오전11:00
유아유치부 오전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6:00
초등부 오전11:00 Youth 금요모임(금) 오후7:30

유경재 담임목사

나성북부교회

성경을 배우며 성경에 충실한교회

8756 Woodley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893-8755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아침년 오후 12:30
EM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818)882-9191 F.(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주일 1부 8:00AM 중·고등부 9:30AM/11:15AM
주일 2부 9:30AM 수요일교회 7:30PM
주일 3부 11:15AM 새벽예배 월-토 5:30AM
영아, 유아, 유치부 9:30AM/11:15AM

손창민 담임목사

에브리데이교회

예수로 충만한 교회

17037 Devonshire St, Northridge, CA 91325
Tel. (818) 832-6628 www.churcheveryday.org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한아침년 오후 12:30
금요아침예배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오영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주일예배 오후 12:30
주일 EM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화요일성경공부 오후 7:30

이건창 담임목사

발렌시아 샘물교회

25222 Wiley Canyon RD, Santa Clarita, CA 91321
Tel. (661)219-5434 www.sammool.org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일성경회 저녁 7:45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 토 오전 6:00
주일 3부 영아예배 오후 1:00

이충환 담임목사

주안에 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cccla.org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T
T.(818)363-5887 iccc.offic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새벽예배(화-금) 새벽 6:00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EM예배 오전11:00
수요일예배 오전11:00
수요일예배 저녁 7:00

박성호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ANC온누리교회

6700 Schirra Ct, Bakersfield, CA 93313
T. (661) 831-2262 / onnuribk.com/anc

주일예배 오전 10:40
목요예배 오후 7:00
토요새벽 오전 5:30

지동근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

4500 Buena Vista Rd, Bakersfield, CA 93311
T. (661) 472-5979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한국어)
주일예배 2부 오전10:15 (한국어, 스페리쉬)
주일예배 3부 오후12:15 (한국어, 교육부)
새벽예배(월-토) 새벽 6:00
(7175 W Oquendo Rd, Las Vegas, NV 89113)

강일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9525 W Maule Ave, Las Vegas, NV 89148
T. (702) 453-1223 / www.fglvchurch.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45
주일예배 2부 오전11:30
유초등부 주일 오전11:30 수요일예배 저녁 7:30
중고등부 주일 오전11:30 새벽예배(화-목) 새벽 6:00

임인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중앙교회

7570 Peace Way, Las Vegas, NV 89147
T. (702) 489-2999 / www.joonganglv.org

주일예배 1부 오전11:00
주일예배 2부 오후 2:00
EM예배 오전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송삼용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즐거운 제자교회

101 S Rancho Dr, Las Vegas, NV 89106
T. (702) 378-9828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교육부예배 오전11:00
수요일참회기도회 오후 7:00
토요새벽예배 오전 7:00 E.lvkchurch@gmail.com

이정환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예수님의 제자되어 성령님의 열매 맺는 교회

622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252-0077 / lvkcc.org/lvkcc/index.php

주일예배 오전 9:00, 오전 11:00(설교 동시통역)
금요찬양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조응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 E. drjho@hotmail.com

주일 1부 예배 11:30 AM
주일 2부 예배 1:30 PM
수요일예배 7:00 PM
새벽기도 화-토 5:50 AM

임명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우리좋은장로교회

8425 W. Windmill Ln. Las Vegas, NV 89113
T. (702)685-2212, woorioeunchurch.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크리스천 비즈니스

CHRISTIAN BUSINESS

Annie Moon

Insurance Agent
License #0B51378
MEDICARE(메디케어 보험)
213-503-1669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e-mail : 429annie@gmail.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25
E-Mail: inexcollisioncenter@gmail.com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승
-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 영국 알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 독일 슈비츠코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드림 미디어, 교회 음향 무료 컨설팅

- ✓ 좋은 소리는 예배에 은혜를 더합니다
- ✓ 소리는 예배당에 맞춰 세팅해야 합니다

1. 구독 서비스 2. 교회 방문 3. Solo시스템 4. 상담 및 교육

323-643-3033 dmediacontents@gmail.com

다양한 콘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junimmedia@gmail.com www.junimmedia.com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여가의 정성이 한 가득
이리 주문해 주세요!

Cooking Mom T. 213.378.8530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F1 PLUMBING

업계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30불 부터
213-434-8947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제22회 새언약 아카데미 졸업식 다수 명문대 진학 앞뒀

새언약 아카데미(New Covenant Academy, NCA 교장 제이슨 송)가 지난 5월 22일 제22회 졸업식을 거행했다.

이번 고등학교 졸업생 다수는 UC 버클리, UCLA, UC 얼바인, UC 샌디에이고 등 UC계열 및 바이올라, 포덤, 드렉셀, LMU, 노스이스턴, 파슨스, 페퍼다인, 브라운, 노터데임 대학교 등 다수의 명문대 입학 앞두고 있다.

지난 1999년에 설립된 새언약 아카데미는 K-12 소수 정에 사립학교로 타인종 학생은 25%이고 한인 타운에서는 국제학사과정(IB과정)을 성공적으로 운영 중에 있다.

한편, 지난 2024년도 가을학기에 새언약학교는 한인타운 버몬트 3가 Vons 옆에 위치한 LA나사렛 제일교회(LA First Church of the Nazarene) 5만 스퀘어 피트 공간을

새언약 아카데미가 지난 5월 22일 제22회 졸업식을 개최했다. ©NCA

K-7 학년을 위한 캠퍼스로 탈바꿈해 학생들에게 더욱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이로써 NCA는 기존의 캠퍼스(6가와 샤토 플레이스)에서 8-12학년을 위해, 새 캠퍼스에서 K-7을 위해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다음학년도 학생을 모집중이다.

문의: jonah.kang@e-nca.org
8-12 캠퍼스: 3119 W 6th St. LA
K-7 캠퍼스: 221 S Juanita Ave.
주디 한 기자

라크라센타 어노인팅교회 ‘뜸/침 건강특강’

‘영혼육이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는 어노인팅교회(라 크라센타 소재, 신경섭 목사)는 김용규 한의사를 초청하여 <뜸, 침 건강특강>을 6월 14일(토) 11시에 개최한다. 작년 공진단 클래스, 전인치유 세미나에 이어, 올해는 건강 체조 클래스를 개최한 연장으로 강의와 함께 실제 적용에 대한 안내가 있을 예정이다.

신경섭牧사는 “주일 예배, 새벽기도와 성경공부를 통해 말씀, 찬양, 기도를 강조하고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실제 삶에 나타나도록 정신 건강과 육신의 건강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으로 월 1회 토요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회 안을 넘어 교회 밖 커뮤니티와 함께하는 차원에서 지난 5월 발달장애

어인 사랑의 마당축제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뜸/침 건강 특강’ 때 참여하실 육신이 아픈 분들을 위해 기도드리고, 본인이 가정에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얻

어가시길 바랍니다.”라고 초청의 말을 전했다.

주소: 2902 Montrose Ave., La Crescenta, CA
문의: 224-622-9183

시니어가 교회를 살린다, 시니어 사역 세미나 개최

제2회 시니어 사역 세미나가 오는 6월 10일(월), 홀러튼 장로교회(황인철 목사)에서 열린다.

이 행사는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 평생교육원이 주관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된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10월 열린 첫 세미나에 이어 실천적 방향과 사역 확대에 중점을 둔다. 참가 대상은 목회자뿐 아니라 시니어 성

도 및 시니어 사역에 관심 있는 누구나 가능하다.

행사에서는 CPU 평생교육원이 올해 1-3월에 실시한 ‘미주 한인교회 시니어 신앙 및 사역 현황 조사’ 결과가 처음으로 발표된다. 이 조사는 시니어 성도들의 신앙생활, 사역 참여, 소명 의식 등을 다룬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호성기 목사(PGM 국제대표)의 강의, 이성희 원장의 조사 결과 발표, 송병일 목

사(텐버 한인기독교교회)의 현장 사례 발표 등이 예정되어 있다. 소그룹 토의와 지용근 소장(한국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영상 메시지도 포함된다. 참가비는 없으며, 사전 등록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등록 링크: <https://forms.gle/c9A13KFDwjCZZnFr7>

문의: lifelonghwang@ptsa.edu 562-536-0128 (황성만 목사)

김민선 기자



태양광, 솔라!!
주택용 30% Tax Credit / 상업용 최대 80% Tax Benefit



2025년
대박



무료 설치 서비스
전기차에 필수인
240V 아울렛을 무료 설치해 드립니다.



백업용 배터리
정전에도 끄떡없고 절약을 위한 옵션,
고객님들께 원가에 제공합니다.
SCE 지역 필수 / LADWP 선택 옵션

초기부담 없는 \$0 다운부터
풀 페이먼트 / 할부 결제 / PPA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텍스 크레딧: 최대 30%
감가상각: 최대 80% 적용
(2024년 설치 시)
• 원금 회수기간: 3년 ~ 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www.btssolar design.com

LA: 2621 W. Olympic Blvd. #206
Los Angeles, CA 90006
213.500.8000
OC: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714.702.0151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Why BTS Solar?
고객님들께 드리는 서비스 약속
최고의 서비스
잘 훈련된 프로페셔널 팀이
최고의 제품을 사용하여 설치해 드립니다.
최고의 워런티
25 YEARS
고객님의 시스템은 언제나 안전합니다.
업계 최장 25년 워런티를 보장합니다.
최고의 제안가격
타사대비 25-40%
저렴한 가격으로 제안 드립니다.



빠른 상담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진행해주시고.
1. 최신 전기빌을 준비해 주세요.
2. 전기빌 1~4 페이지를 사진 찍으신 후 문자
또는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3. 확인 후 고객님께 별도 안내 드립니다.

[사설] ‘독주’ 아닌 ‘협치’로 국민 기대에 부응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비상계엄 선포와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적 혼란 속에 치러진 이번 조기 대선에서, 국민은 정권 교체를 선택했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으로 파면당하면서 처음부터 정권 심판론으로 기우는 바람에 이 대통령의 낙승이 어느 정도 예견됐다.

당선이 확정된 이 대통령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마련된 민주당 개표방송 야외무대에 올라 대통령으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첫 번째 사명이 “내란을 확실히 극복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나라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민주공화정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국민들이 주권자로서 존중받고 증오, 혐오가 아니라 인정하고, 협력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 반드시 그 사명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내란 극복은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조기 대선 과정에서 줄기차게 주장했던 구호이자 정치적 목표였다. 대통령의 탄핵과 파면으로 이미 내란이 종식된 것이란 평가가 나오지만, 절반에 가까운 국민이 이에 동의함으로써 정권 교체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조기 대선에서 ‘사법 리스크’라는 악재를 뚫고 전임 대통령의 탄핵·파면이라는 유리한 고지 위에서 출발해 과반에 육박하는 지지를 얻어 당선됐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지지하지 않은 국민이 절

반 가까이 됐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대선 개표가 완료된 4일 오전 5시 이재명 당선인은 49.42%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41.15%,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8.34%로 최종 집계됐다. 보수권의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합산 득표율이 49.49%로 이 대통령의 득표율을 뛰어넘었다는 점에서 국민 대다수가 향후 일방적인 국정 운영 독주를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선 즉시 대통령의 임기를 시작한 이 대통령과 야당에서 여당의 위치로 바뀐 민주당의 당면 과제는 국민통합과 정치 복원, 경제 위기 극복이다. 그중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정국에서 분열된 사회를 통합하는 게 가장 시급한 과제일 것이다.

국민이 이 대통령을 선택한 이유도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에서 비롯된 국가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라는 데 있다. 정치에 의해 갈라진 극단의 국민 분열 상황을 봉합하고 국론 결집을 이루라는 명령인 거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정치 보복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신이 “통합된 나라를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려면 지지층에 의존하는 진영 정치부터 갈아엎아야 한다. ‘개팔’로 불리는 극렬 지지층 대선 반대자를 포용하고 끌어들이는 정치가 국민통합의 첫걸음일 것이다. 그렇게 하면 지지하지 않은 과반의 국민 마음까지 신뢰로 돌아서게

될 것이다. 반대로 야당과 보수권을 적폐 세력으로 몰아 청산 대상으로 삼았던 과거 진보정권의 구태를 반복한다면 국민통합과 국론 결집은 또다시 불거품이 되고 집권 내내 갈등과 분열이 반복될 것이다.

교계는 새로운 대통령에 대한 기대와 바람을 나타냈다. 한국교회총연합회는 성명에서 “우리나라는 지난 3년간 정치 리더십이 가져온 국정 불안정과 사회적 분열을 겪어 왔다”며 “새 대통령은 지난 시대의 잘못을 거울삼아 지지해 준 국민뿐 아니라, 지지하지 않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이념적 간극을 좁히고, 민생과 경제 문제에 집중함으로써 국민의 삶이 보다 나아지도록 하는데 국정의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종언했다.

교계는 이 대통령이 국민통합과 정치 복원을 이뤄 한·미 통상 압력과 복합 경제 위기 극복, 안보 리스크 등의 난제를 풀어나가는 동시에 국정 안정을 도모할 것을 바라고 있다. 한교총이 “불신과 분열, 혐오와 대립으로 점철된 대한민국 정치사에 새로운 희망과 존경을 만들어내는 대통령과 정부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것도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도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품으며, 심지어 비판하는 사람들과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존중할 수 있는 화합을 이뤄내는 대통령이 되기를 기도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기대 못지않게 우려의 시각도 여전히 있다. 입법·행정을 동시에 장악한 새 정부가

독단·독주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많은 국민이 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 등 시장경제에 반하는 사회주의식 입법이 남발되지 않을까 벌써부터 걱정하고 있다.

최근 민주당 의원 10명과 조국혁신당 의원 1명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이 온라인상에서 성적지향 등에 대한 차별과 혐오표현을 불법 정보로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신고시스템 도입을 골자로 한다는 점에서 교계 일각에선 ‘차별금지법’ 우회 발의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이처럼 교계가 우려하는 게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법 독주가 재연된다면 교계의 기대는 일시에 갈등과 반목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대선 과정에서 ‘차별금지법’을 당장 추진할 계획이 없음을 밝혔지만, 여당 내 친 동성애 그룹이 지지층을 의식해 이와 유사한 악법을 남발할 가능성에 교계가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게 된 현실이다.

이번 대선은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갈등 속에서 치러진 만큼 국가 혼란과 사회적 갈등을 끝내야 한다는 사명이 주어졌다.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시장 경제는 기본 중에 기본이다. 이런 국민적 여망에 행정·입법 ‘독주’가 아닌 ‘협치’로 부응하는 대통령, 집권당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훈구 칼럼

단기선교를 미국의 시골 교회로 가는 청년들



이훈구 장로
G2G선교회 대표

여름 방학이 되면 많은 교회들이 단기선교팀을 구성하여 해외로 선교를 가는 편이다. 단기선교는 전도 및 복음전파활동, 의료 및 위생 선교, 어린이 및 청소년 사역, 봉사 및 건축 사역등 다양하게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미리 준비하여 출발하는 편이다. 그런데 해외가 아닌 미국에서 미국의 시골 작은 교회로 찾아가서 단기선교 활동을 하는 아주 귀한 활동을 소개하고자 한다.

텍사스 산안토니오 온누리교회 (담임 박한덕 목사)의 청년들 중심으로 구성된 단기 선교팀이 청년부 디렉터 주영중 장로의 인솔자와 함께 총 15명이 텍사스 남부 멕시코 국경

도시인 맥알렌 지역의 맥알렌 한인교회 (담임 권영배 목사)로 단기선교활동을 2025년 5월 22일- 25일 (3박4일) 일정으로 가게 되었다.

맥알렌 한인교회 담임 목사가 해외한인 장로회 총회 참석차 5월초 한국 방문 중에 연락이 와서 단기선교를 가기를 원한다는 연락을 받고 처음에는 단기간에 여러가지 준비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서 하지 않겠다는 회신을 하려다가 다시 기도중에 단기선교팀과 화상통화를 하고는 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한다. 단기 선교팀이 숙박할 장소를 찾는것도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지역의 한인중에 에버비엔비를 운영중인 사업가가 있어서 단기 선교팀 머물 곳을 찾았다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방 다섯개인 2층 건물 전체를 단기선교팀을 위해서 무료로 제공해 주게 되어서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잘 해결 되었다고 한다.

이번 단기 선교팀은 크게 다섯가지로 구분하여 각 분야별 활동을 하였다. 첫째는 산안토니오 온누리 교회 단기선교팀 청년부와 맥알렌 한인교회의 청년부가 연합 수련회를 통해 매일 예배와 성경공부등으로 영적 성장의 기회를 가졌다. 그리고 둘째는 전도팀을

구성하여 한인 마트와 한인 식당등을 매일 방문하면서 전도활동을 하였다.

셋째는 두 교회의 찬양팀이 연합으로 찬양연습을 하여서 맥알렌 한인교회 40주년 기념 예배에 이웃과 가족들을 초청하여 특별 찬양과 친교식사도 함께 하였다.

네번째는 단기선교팀이 음향장비를 지원하고 설치 및 정비하여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의 장비를 신형 디지털 음향장비로 교체했다. 다섯번째는 시실 봉사팀은 주차장의 주차선 긋기와 교회 건물의 일부 수리 작업을 하게되었다.

3박4일의 짧은 기간의 단기 선교 활동이지만 멀리 해외로 가는 단기 선교가 아닌 가까운 미국 국내의 시골 교회를 찾아서 그 교회가 필요로 하지만 여건이 안되어서 하지 못하고 있었던 일들을 지원하여 해결해 주고 또 시골 교회의 청년들과 함께 연합하여 영적으로 깨어 더욱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단기선교

를 참여하였던 청년들이 아주 뜻깊은 선교활동이었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 하였다.

그리고 한번으로 끝나는 일회성 활동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두 교회의 청년들 연합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기를 원한다고 하였다. 앞으로 두 교회 청년들의 활동이 기대가 된다. 단기 선교를 해외로 갈 경우 많은 인원이 가기가 힘들고 여러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는 실정이 많다. 그러나 미국내의 시골 교회를 많은 인원이 함께 참여하여서 약한 교회의 필요로 한 것을 를 돕는 일과 또 청년들의 신앙을 한단계 성장 시킬 수 있는 연합수련회도 함께 할 수가 있어서 참으로 유익한 단기 선교시간이었다.



2025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TALBOT
SCHOOL OF THEOLOGY
BIOLA UNIVERSITY

신입생 모집

달빛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 세계 최고의 교수진
-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 실용적인 사역 대비
- 오프라인 수업
- 마크 비자 (I-20) 발급

카카오톡 채널: "달빛" 검색

유튜브: "달빛신학교" 검색

Email: talbot.korean.dmin@biola.edu

13800 Biola Avenue, La Mirada, CA 90639 | Tel : 562-903-4705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정회원
- 기독교학과(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목회학박사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철학박사(Ph.D)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이성훈 박사

1204 W. 163rd St.Gardena, CA 90247

Tel (323)643-0301, Fax(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816)414-3754 Email: ks@mbts.edu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의 새로운 이름

SINCE 1977

* 전세계 온라인으로 온 캠퍼스와 실시간 수업가능 *

- 1977년 설립된 이후 지커온 선교 지향적 교육을 토대로 다양하고 폭넓은 미래지향적 교육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 최첨단 효율적인 온, 오프라인, 블렌디드 교육 플랫폼 제공
- 과정에 따라 영어, 한국어, 중국어 프로그램 (학사, 석사, 박사)
- SEVIS I-20 발행 | 연방정부 학자금 보조 | 미국연방 인가된 학교
- 홈페이지 www.ptsu.edu | 입학문의 562.926.1023 (ext 300)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213)388-1000 Fax:(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909- 687-1649 / KEB@GS.EDU

WWW.GS.EDU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T.(626)857-2200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e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요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는

Re-Vital Online Program

www.gbtlis.org

학교주소 13108 Valley View Ln, Farmers Branch, TX 75234

이메일 1 aurahelio@gmail.com

전화 1 508-826-5145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연방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허복

- MATS 선교학 석사
- Th.M 신학석사
- M.Div 목회학석사
- D.Min 목회학박사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 온라인 수업 제공

문의(626) 653 9547 EXT.# 112/admin.kor@itsla.edu

세상과 그리스도를 잇는

We Bridge 교회

주일예배 1부
주일예배 2부
새벽기도

오전 9:30
오전 11:15
오전 5:30

이미애 담임목사

Angel's Church

255 S Hill St, Los Angeles, CA. 90012
T. (323)485-8787

주일예배
화요일예배
금요일예배

오전 10:00
오전 10:00
오전 10:00

한주봉 담임목사

Connecting Mission Baptist Church

8520 Western Ave. Buena Park, CA 90620
T. (510)390-5456

주일예배
교육부예배
목요예배
토요새벽예배

오전 12:00
오전 12:00
오전 7:30
오전 6:30

이현욱 담임목사

His Presbyterian Church

4037 Lehman Rd. La Crescenta, CA 91214
T. (626)318-6611 www.Hisch.org

주일예배

오전 11:11

곽찬훈 담임목사

Los Angeles One Church

1940 N. Bullis Rd. Compton, CA 90221(Worship Location)
2065 E 120th St. LA, CA 90059(Mailing Address)
T. (213)273-6452 www.laonechurch.com

주일예배
주일학교
목요종보기도회
새벽예

오전 11:00
오전 11:00
저녁 8:00
새벽 6:00(월-토)

송재봉 담임목사

LA사랑의 동산교회

2865 W. 7th St., Los Angeles, CA 90005
T. (213)663-9899

주일예배
수요찬양예배

오전 11:00
오후 7:30

박지상 담임목사

LA하나교회

1503 Crenshaw Bl, Los Angeles, CA 90019
T. (213)500-2047

주일예배

오전 11:00

JOE HONG 담임목사

Metanoia Church of Southbay

18051 Crenshaw Blvd., Suit I, Torrance, CA 90504
T. (313)800-3120

주일예배

오전 10:30

ISAIAH LEE 담임목사

New Start Community Church

77651 Commonwealth Ave. Buena Park, CA 90621
T. (714)336-0520

주일예배
성경공부 및 기도회
목요종보기도회
https://www.facebook.com/chkho69

오전 10:00
금요일 오후 7:30

장경호 담임목사

Only One Church

1525 Glenoaks Blvd. San Fernando, CA 91340
T. (469)289-8781 카톡 ID : chkh0810

주일예배

오후 2:00

제임스킴 담임목사

The Well Church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 (562)410-9225

주일예배
금요일기도회

오전 11:00
오후 7:00

김상현 담임목사

In Christ Christian Church

1465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 92833
T. (213)422-6388

주일예배/EM예배
성경공부(목)
셀모임(금)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11:00
오후 7:00
오후 7:00
오전 5:30

김정호 담임목사

가스펠교회

1520 La Mirada Blvd, La Mirada, CA 90638
T. (657)253-8561 www.thegospelchurch.net

주일예배
기도회(주일)

오전 11:00
오후 3:00

양홍규 담임목사

굿프렌즈교회

5721 Lincoln Ave #K, Cypress, CA 90630
T. (714)852-8485

주일예배
수요일예배

오전 11:00
오후 7:30

안상희 담임목사

남가주늘사랑교회

1650 Avenida Selva, Fullerton, CA 92833
T. (714)482-5466

주일 1부
주일 2부
새벽예배
수요성경공부
금요일예배

오전 8:00
오전 10:30
오전 5:30(화-금), 6:30(토)
오전 7:30
오후 7:30

남상권 담임목사

남가주 어노인팅교회

1455 Crenshaw Blvd Suite 205, Torrance CA 90501
T. (213)800-3651 www.anointingchurch.org

주일예배
EM/교육부
새벽예배
금요성구탐구

오전 10:00
오전 10:00
오전 6:00
오후 7:30

오성규 담임목사

남가주예수사랑교회

16113 S. Denker Ave, Gardena, CA 90247
T. (310)702-7571

주일예배
수요일예배
새벽예배

오전 11:00
오후 7:00
오전 6:00(화-금)

김창곤 담임목사

남가주은혜선교교회

300 Vallejo Dr. Glendale, CA 91206
T. (310)713-3006

주일예배
수요일예배
토요비전새벽기도회

오전 11:00
저녁 7:00
오전 6:00

차권희 담임목사

늘워킹로교회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90650
T. (213)598-6878

주일예배
청년부예배

오전 9:30
오전 9:30

강은덕 담임목사

늘새론교회

899 S. Disneyland Dr. Anaheim, CA 92802
T. (714)453-8829 dmsejrkd@hanmail.net

주일예배
어르신예배
금요일기도회

오전 12:30
오후 3:00
오후 7:00

김영일 담임목사

더섬기는교회

605 S Palm St #H, La Habra, CA 90631
T. (909)975-1260 jacobkim1318@gmail.com

주일예배
수요TEE성경공부

낮 12:00
오전 10:00

정용암 담임목사

랜초한인교회

31300 Rancho Community Way, Temecula, CA 92592
T. (714)337-8096 http://rancho.kr

주일예배
교회학교 & 유스예배
수요나눔 교역자
수요종보기도

오전 11:00
오전 12:50
오전 9:30
오후 8:30

박은성 담임목사

Acts Global Church

15 Orange Tree, Irvine, CA 92618
T. (714)886-7287

주일예배
오전 11:00

정달성 담임목사

리뉴얼새힘교회

1636 W 8th St. #315. Los Angeles, CA 90017
T. (213)509-5360

주일예배 1부
주일예배 2부
아침기도회
중보기도
소그룹 성경공부

오전 8:00
오전 11:00
오전 6:30 (화-토)
오전 10:00 (주일)
오전 10:00-12:00 (수)

김명구 담임목사

말씀위의교회

3579 Arlington Ave, #500, Riverside, CA92506
T. (909)247-7355

주일예배 1부
주일예배 2부
새벽기도회

오전 8:00
오전 11:00
오전 6:00(토)

서민수 담임목사

방주교회

1343 W. Valencia Dr. #G, Fullerton, CA 92833
T. (714)222-8746

주일예배
새벽기도회
토요아침기도회

오후 12:00
오전 6:00(화-금)
오전 8:00

장현석 담임목사

버몬한인교회

702 Euclid Ave., Beaumont, CA 92223
T. (909)809-7922 www.beaumontkoreanchurch.com

주일예배
목요일예배
토요일새벽

오전 10:40
오후 7:00
오전 5:30

지동근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

4500 Buena Vista Rd, Bakersfield, CA 93311
T. (661)472-5979

주일예배
성경공부
목요일예배
금요일예배
토요일예배

오전 9:00
오전 11:00
오전 11:30
오전 11:30
오전 11:30

에스라킴 담임목사

생명의바람교회

12420 Mar Vista St, Whittier, CA90602
T. (714)683-9894 windoflifec@gmail.com

주일예배
성경공부

오후 1:00
평일 저녁 6:30

임상훈 담임목사

소리엘교회

12440 Firestone Blvd, Norwalk, CA 90650
T. (213)290- 8129

주일예배 1부
주일예배 2부
수요일예배
새벽기도회

오전 8:00
오전 11:00
오전 7:30
오전 6:00(토)

이석기 담임목사

성령과 함께 일하는 교회

2666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626)679-2115

주일예배
수요저녁기도회
금요일예배
새벽기도회

오전 11:00
오후 8:00
오후 9:00
오전 6:30

김요한 담임목사

성암교회

2551 Beverly Blvd, #D, Los Angeles, CA 90057
T. (213)220-6421

주일예배
성경공부 주일
아침기도회(온라인)
기도모임

오전 11:30
오후 1:30
오전 7:00(화-토)
오전 11:00(화)

정찬군 담임목사

예심교회

7342 Orangethorpe Ave. Ste B-113. Buena Park, CA 90621
T. (562)315-6543

주일예배
주일학교 & Youth
금요성경기도회
청년부
수요(온라인) 새벽기도

오전 11시 (세대가 함께 하는)
오후 1시 30분
금요일 저녁 11:00
금요일 저녁 8시
수요일 새벽 5시 30분

김지연 담임목사

원웨이침례교회

6015 Palm St, La Habra, CA 90631
T. (213)249-5017

주일예배
수요일기도회
새벽기도회

오후 12:00
오후 8:15
오전 5:30(화-금)

최주철 담임목사

은혜가샘솟는교회

10949 Zelzah Ave. GRANADA HILLS, CA 91344
T. (818)703-2292

주일예배
새벽기도회
아인리 & Youth

오전 11:45
오전 11:45

표희곤 담임목사

은혜샘교회

5471 W Cerritos Ave. Cypress, CA 90630
T. (714)337-0551

주일예배
수요일예배
금요일기도회

오전 11:00
오후 8:00
오전 9:00

류연주 담임목사

주님의숲교회

1221 Candlewood Dr. Fullerton, CA 92833
T. (562)567-4573

주일예배
주일학교
금요youth모임
목요종보기도

오후 2:00
오후 2:00
오후 7:00
오전 10:00

류광환 담임목사

커넥션교회

114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5
T. (714)366-9263

주일예배
New Start Mission 매주 목요일

오전 10:30
오전 10:30

양수용 담임목사

초대교회

1345 S. Burlington Ave. Los Angeles, CA 90006
T. (818)434-1253

주일예배
새벽기도회
나눔 코이 모임

오후 1:00
오전 6:00(화-토)
오후 6:00(월)

권혁래 담임목사

카마리오열방교회

1369 Del Norte Rd. Camarillo, CA 93010
T. (805)419-6043

주일예배
주일성경공부
수요일기도회

오전 10:30
오후 7:30
오후 7:30

조 인 담임목사

카마리오 제일장로교회

1101 E Ponderosa Dr., Camarillo, CA 93010
T. (213)700-3341 www.kfpcc.com

주일예배
토요일종보기도회

오전 10:30
오전 6:00

양국민 담임목사

함께하는 주은혜교회

520 S Lafayette Park Pl. #520 Los Angeles CA 90057
T. (310)753-6169 tgodsgc@gmail.com

주일예배
수요일예배 및 성경공부
새벽기도회

오전 11:30
저녁 7:30
오전 5:30 (월-토)

김용근 담임목사

크레센타밸리 한인연합감리교회

2700 Montrose Avenue, Montrose, CA 91030
T. (323)774-2992

주일예배

오후 1:00

정하이 담임목사

크로스교회

3663 W 9th St, #110, Los Angeles, CA 90019
T. (626)342-4366

주일예배 1부
주일예배 2부
주일예배 3부
주요예배 목요
파워워십 2번주 금요

오전 11:00(요청시)
오전 1:30
오전 1:30
오전 8:00(한아) / 금요 오후 8:00 (영아)
오전 8:00(영아) / 4번주 목요 오후 8:00 (한아)

오충성 담임목사

하늘기쁨의교회

12104 Los Coyotes Ave, La Mirada, CA 90638
T. (213)215-0555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28:12-27)

■ 센트럴 신학 단상

다 비워졌을 때의 자기 비움에 관하여



정 단 비 교수
센트럴신학대학원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자기 비움은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참된 하나님인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을 비우셨듯이,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 겸손한 자기 비움의 삶의 모양을 가지라고 권고합니다. 빌립보서 2장은 우리의 자기 비움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가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경청하며 이를 받아들이어 순종하는 것이라 암시합니다. 그리고,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있어서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히 자신의 주장과 필요를 내려놓고 지체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제시합니다 (빌 2:3-4).

그런데, 이처럼 자기 비움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매우 핵심적인 신앙의 자세이자 덕목인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살다 보면, 이 자기 비움을 차마 하지 못할 것 같은 순간들을 마주하게 되기도 합니다. 가령,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살았지만,

내가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산과 같은 어려움들을 계속 마주하며, 때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순종할 힘을 잃고 지쳐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또, 오래 인내하며 이웃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려 애썼지만, 그 과정에서 점점 소진되어 이제는 그 사랑의 자리에 무의미함과 쓴 뿌리의 재만 남은 것 같은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자기를 비워 순종과 이웃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힘과 숨이 모두 다 타버리는, 번아웃을 경험하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묻게 됩니다. 다 타버린 우리가 자기 비움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더 비울 수 있는 것이 남아있는 것일까, 하고 묻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 소진된 상태에 있는 우리의 자기 비움의 가능성에 관련하여, 몇몇 현대 신학자들은 삼위일체의 자기 비움에서 그 모델을 찾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은 서로 동일한 본질을 지니시면서도, 또한 서로 구분되는 위격으로 계시기에, 이 서로 다른 세 분의 위격은 서로와 ‘관계’를 맺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온전한 하나가 되기까지 사랑하는, 깊은 사랑의 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몇 현대 신학자들은, 세 위격의 하나님이 이처럼 서로와 사랑의 관계를 맺는 가운데, 서로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자기 비움으로서 서로를 사랑하고 계시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령, 스위스의 가톨릭 신학자 한스 우르스 폰 발타사르는 성부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본성과 생명을 성자와 성령에게 내어주심으로써 성자와 성령을 사랑하시고, 성

자는 그것에 대한 감사로서 자신의 모든 존재를 담은 순종을 성부께 드림으로서 서로를 사랑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Hans Urs von Balthasar, Mysterium Paschale). 즉, 삼위일체의 각 위격이 서로를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비워 서로에게 줌’으로써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담 대학교의 정교회 신학자인 아리스토를 파파니콜라우는, 발타사르가 제시한 삼위일체의 상호 자기 비움의 모습이 단순히 일방적인 자기 내어줌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합니다.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를 위해서 자신을 비우는 것에는, 서로를 위해 ‘각자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도 포함되지만, 동시에 각자가 자신을 비움으로써 다른 위격이 자신에게 제공해주는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수용’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Aristotle Papanikolaou, “Person, Kenosis and Abuse”). 삼위일체의 자기 비움에는 자기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로부터 ‘받는 것’ 역시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파파니콜라우는 삼위일체가 제시하는 자기 비움의 모델은 상대를 위해 기꺼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기꺼이 받는 자세라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비우며 순종과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때로, 자신을 다 잃어버린 듯한, 소진되는 때를 마주합니다. 엘리야가 여호와께 순종하여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도 대적하여 이겼지만, 큰 승리 이후에도 전혀 변하지 않는 현실을 마주했을 때, 그는 순종으로 자기를 비워왔던 삶에 대하여 낙담하고 무너집니다. 모세는 자기 백성

을 사랑하여 이들을 이끄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 하나님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충성스럽게 헌신했지만, 사람들의 이해 부족과 끊임없는 요구, 그리고 끝없는 갈등 속에서 몸과 마음이 소진되어 갑니다. 이럴 때, 이미 다 비워질 만큼 비워진 우리에게, 자기 비움이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없는 에너지로 지쳐버려 나를 주기 위하여 비우는 것보다도, 적어도 자기가 이미 다 비워진 이 때에는, 하나님과 다른 이웃들이 그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도록 ‘자신 안에 공간을 만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기까지 절망했던 이 때에, 그는 자신을 ‘비워’ 하나님께서 그에게 조용히 다가오시고 그를 먹이시고 채우실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혼자 백성들을 돌보며 소진되어가고 있던 모세에게, 그의 장인 이드로는 공동체 다른 이들의 도움을 받고 그의 책임감을 좀 ‘비우라’ 청합니다. 자기가 자신을 책임질 뿐더러 하나님과 이웃의 섬기는 일까지 감당해내려는 습관을 지닌 우리에게, 때로 그저 채움을 받고 도움을 받는 일은 이런 우리의 독립성과 주체성을 좀 내려놓고 비워내는 겸손함이 필요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영국 성공회 신학자 사라 코클리는 기독교의 자기 비움이란, 무조건적인 자기 희생, 자기 소진이 아닌, 상대가 나에게 들어올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Sarah Coakley, God, Sexuality, and the Self). 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기 비움이란, 너를 위해 나를 내어주는 것 뿐만 아니라, 내 안에 ‘너의 내어줌’을 받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 진유철 칼럼

민음의 고백을 활용하면 승리한다



진 유 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인생을 인생답게 만드는 필수 코스가 있다면 그것은 고난과 아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난과 아픔을 통해 인생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게 됩니다. 요셉은 믿음의 가문에 태어났음에도 부잣집의 철없는 도련님과 같았는데,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고 또 역악한 감옥생활까지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배려하는 성숙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별 고난 없이 왕이 되었기에 자기생각을 못 꺾고 불순종하는 실패자가 되었지만, 다윗은 고난과 아픔의 광야를 지나며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배웠고, 낮아짐과 불편함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담대함을 키웠습니다. 결국 실패와 고난들이 더 많은 사람들을 바르게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고난의 때는 성장의 때입니다. 그러나 다른 면으로는 무너질 수도 있는 위험의 때이기 때문에 만만하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원수마귀는 고난과 아픔의 때에 정신세계에 충격을 주어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를 넘어뜨릴 때도 먼저 마음의 생각 속에 역사하지 않았습니까? 고난의 광야를 통해 성장하고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음의 생각 속에 역사하는 원수마귀를 먼저 이겨야 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고백을 통해 원수마귀를 분명

히 이기셨습니다.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서 금식하실 때 시험하는 원수마귀를 말씀의 고백과 선포로 이기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방해하는 원수마귀가 베드로를 통해 역사할 때도 입술로 선포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기셨습니다. 역사하는 원수마귀를 생각으로 물리친다고 물리치지 않습니다. 입술로 믿음을 고백하고 선포함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는 원망과 불평과 반대가 되는 절대 감사와 긍정을 더 적극적으로 고백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열심히 찬송을 부름으로 나오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다른 때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며 믿음을 고백하면 이깁니다. 가정에서 부부싸움을 해도 문 걸어 잠그고 말 안하는 부부는 화복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려워도 믿음의 한 마디, ‘미안해, 고마워, 잘못했어, 사랑해!’ 말하는 부부는 이기고 해결이

됩니다. 세상에서도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것을 통해 애국심이 더 고취됩니다. 운동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응원하는 고백과 선포를 통해 마음이 끓어오르고 애국심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나라 사랑한다는 고백이 거의 없다가도 응원을 통해 “대~한민국, 오~필승 코리아!” 모두가 함께 노래하고 소리치면서 뜨겁게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중요하게 강조하여 가르치고 증거 해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막11:23,24)

고난의 때를 성장의 때로 만들기 원한다면, 힘들고 어려운 문제나 세상일을 말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믿음을 고백하고 선포하여 승리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롬!



심성통운

SAMSUNG SHIPPING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저희 "삼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사의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

이사의 명가(名家)

귀국이사

- 집안 내에서 손님 임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완벽한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시내이사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돌침대 취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창고 보관 가능

자동차운송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초 저가 차량 운송

가주 삼성 통운(주)

타주이사

- 무료 창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
- 샌프란 시스코, 베가스, 피닉스 당일 출발
- 씨애틀, 달라스,아틀란타, 뉴저지 월2~3회 정기 운행

해외이사

- 하와이, 괌, 알라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문의 1-877-580-24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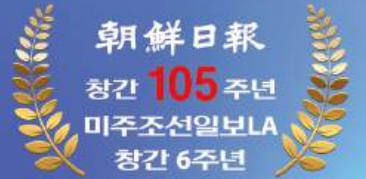
서울 (310) 538-3333

LA (323) 582-2424

OC (714) 777-7799

SAMSUNG SHIPPING, INC.
samsungmoving@gmail.com

- 주정부 허가: MTR-190586
-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 Fully Insured & Bonded



대한민국 트롯 열풍의 주역 미스터트롯3 TOP7이 LA를 강타한다!



춘길

김용빈

추혁진

손빈아

천록담

남승민

최재명

TOP7 미스터트롯3

2025년 8월 24일 (일)

2 PM / 6:30 PM (2회 공연)

월셔이벨극장 | WILSHIRE
EBELL THEATRE
The Ebells of Los Angeles

743 S. Lucerne Blvd., Los Angeles, CA 90005



미주조선일보LA 창간 6주년 기념 미스터트롯3 TOP7 LA공연이 월셔이벨극장에서 펼쳐집니다. 임용빈, 손빈아, 천록담, 춘길, 최재명, 남승민, 추혁진 이상 TOP7 전원이 LA공연에 출연합니다. 임영웅을 잇는 차세대 트롯 황제들의 폭발적인 가창력과 무대 장악력! 뜨겁고 진한 감동의 무대를 느껴보세요. 하나 더! 미스터트롯3 TOP7과 함께하는 멕시코크루즈 4박5일(8월 25~29일), 엘리트투어와 떠나세요. 문의 - 엘리트투어 (213)386-1818

티켓 예매 문의 (213)459-6800 | (213)315-5177

e-mail: ticket@chosundaily.com



구독신청. (213)459-6800 | 광고문의. (213)315-5177
4221 Wilshire Blvd. #224, Los Angeles, CA 90010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한 사람 귀하게 여기는’ 성령충만 말씀 묵회

김양재 목사 “한 사람 귀히 여기면… 날마다 사도행전”



성령의 선물

김양재 | QTM | 464쪽 | 20,000원

우리들교회 김양재 목사의 큐티강해 사도행전 1권. 사도행전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을 다루고 있으며,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주님의 지상명령을 이루어 가는가에 대한 기록이다

김양재 목사가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암’이라는 큰 환난이 찾아왔다. 그러나 김양재 목사는 도리어 암을 구원의 권세로 여기고 자신의 고난을 통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를 것을 선포했다. 저자가 어떻게 암이라는 높은 산을 말씀으로 해석하며 통과했는지 이 책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오래 전부터 필자에게는 자동차를 타면 자연스레 극동방송을 듣는 습관이 생겼다. 한동안 아침 일찍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야 하는 일이 있어 극동방송을 들었는데, 그 시간대가 바로 김양재 목사님의 설교 시간이었다.

그렇게 죽 한동안 김 목사의 설교를 듣게 되었다. 잔잔하고 호소력 있는 음성으로 깊은 신앙심에서 우러나오는 김 목사님의 설교가 귀에 솔깃하게 들어왔다. 이후로 김양재 목사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어, 그녀의 저서 중 하나인 ‘성령의 선물’을 읽게 되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김 목사님은 그냥 보통 분은 아니었다.

김양재 목사님은 이북이 고향인 부모님 아래 4대째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가정에서 태어나 서울 대학교에서 피아노를 전공했다. 이후 장로님 가정에서 자란 의사와 결혼했으나 유교적 전통이 강한 시댁과 남편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당해, 한때 결혼생활을 포기하려 가출을 단행하기까지 했다. 김 목사님이 37세 되던 해, 산부인과 의사였던 남편이 간암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기 직전 극적으로 회개하며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그때 그녀의 신앙생활에도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김 목사님은 남편의 장례식에서 그동안 두 사람에게 일어났던 일과 불신자였던 남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천국으로 올라가게 된 과정을 강하고 담대하게 간증했다.

그녀는 이때로부터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 전파 활동을 적극적으로 행했고, 마침내 백석대 신학대학원에 들어가 신학을 전공하고 목사가 되어 ‘우리들교회’를 개척하여 지금까지 담임목사로 섬기고 있다. 이 교회는 개척 20년 만에 2만 명의 성도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대형교회로 성장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나는 ‘우리들교회’가 이토록 성장한 데는 김양재 목사님의 말씀 묵회가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김 목사님은 20여 년 전 큐티엠(QTM,

Question Thinking Movement)을 설립해 말씀묵상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교회를 여러 목장으로 세분해 서로 신앙과 생활을 나누는 묵회에 전념했더니 인생의 고민이 많은 자, 고통당하는 자, 소외된 자 등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게 됐다고 한다.

김양재 목사님은 강단에서 줄곧 강해설교를 해오고 있다. 그렇게 강단에서 설교한 강해설교를 묶어 많은 책들을 편찬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이 책 <성령의 선물>이다. 이 책 <성령의 선물>은 사도행전 큐티강해 제1편으로서, 사도행전 1-4장 내용을 담고 있다. 그녀는 이 사도행전 강해설교를 하던 중 암에 걸려 고통당해, 내용이 보다 절박하고 강렬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사도행전 큐티강해 제1편인 <성령의 선물>은 120문도가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다 마침내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며 이적을 베풀며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전하고 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복음을 전파하며 하늘의 영광을 보았고, 비겁하게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성령을 체험한 후 완전히 변화돼 “복음을 전하면 죽이겠다”고 하는 관원들 앞에서 담대하게 “내가 사람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랴” 강변하며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치료되며 서로 구제하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일이 생겨났는데, 김 목사님이 섬기는 ‘우리들교회’는 성경에 나오는 모습 그대로 서로 섬기며 나누는 일을 통해 성령을 체험하며 병든 자가 위로받고 새 힘을 얻는 공동체가 되고 있다. 이 책에서 김 목사님이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한 사람이 귀하다는 사실이다.

“한 사람을 귀히 여겨야 우리가 날마다 사도행전을 쓸 수 있습니다. 반면 한 사람과 막히면 지난 모든 열매가 헛것이 될 수 있습니다. 사

역도 헛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살리라고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비전을 품고, 노인들은 꿈을 꾸게 하십니다(207쪽).”

어쩌면 ‘우리들교회’가 이처럼 큰 공동체가 된 것은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신념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주님께서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해 우리 안 아흔아홉 마리 양을 두고 찾아 나셨다. 한 마리 양을 귀하게 여기고, 한 마리 양이 변화하고 회심해 역동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목회는 오늘날 우리 모두 본받고 추구해야 하는 목회의 모습일 것이다.

김 목사님은 모든 신자들이 성령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성령세례란 물세례와 달리 신앙의 결정적 변화를 이루는 순간을 말하고 있다. 이는 마틴 로이드존스 목사의 성령세례와 결을 같이 하는 주장으로, 복음주의 교회에서 대체로 인정하는 성령관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에는 김 목사님의 사도행전 강해와 더불어 간간히 소개되는 목장 구성원들의 간증이 첨부돼 있다. 이 목장 구성원들의 간증은 적용점을 찾을 수 있는 동기를 만들어주고 있다. 또 이 책의 구성은 책을 읽으면서 그 내용을 잘 정리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다. 각 장마다 소개되는 ‘영혼의 기도’는 책을 읽는 이들이 그 기도를 함께 듣는 것처럼 공감하고 같이 기도하게끔 한다. 극

동방송을 통해 김 목사님이 직접 기도하는 내용을 들은 나로서는 이 부분을 읽는 내내 그녀와 함께 기도하는 마음이 들었다.

마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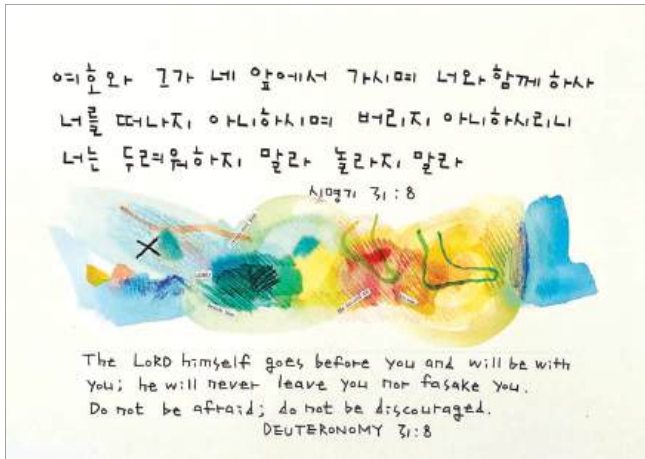
책을 읽으면서 가장 와닿은 한 구절을 소개하는 것으로 이 글을 마치려 한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맛있고 잘난 사람들이 모여 교양 있게 성경공부하는 교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이 모여 주의 일을 하는 교회야말로 진짜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문제도 생기겠지요. 말 그대로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이 모였으니 저마다 상처도 많을 테고, 그중엔 성격이 아주 모난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 내 부족한 모습까지도 솔직히 보이며, 서로 말씀으로 진단하고 처방하고 치료해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이 득실득실한 교회가 최고로 좋은 교회입니다. 아픈 사람이 많은 곳에 명의가 있지 않습니까(182쪽)?”

모쪼록 한국교회에서 말씀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김양재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현재 암에서 회복 중에 있는데 부디 완치돼 하나님 나라 운동에 더욱 이바지하시기를 기도한다.

채천석 목사
크리스찬북뉴스 대표

■ 금주의 말씀 묵상 | 김영희 권사



용수산

모임은 “용수산”
고품격 한정식 코스 요리와
다양한 일품요리 전문 용수산

예약 문의
213.388.3042
95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집안의 대를 이어 나가는 마음으로
고객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할머니 손 맛 그대로!
48시간동안 우려낸 진한 국물 맛!
최고급 고기만을 엄선!

송영 투크 설렁탕

단체주문 환영
T.(213)277-1339

2717 W Olympic Blvd. #108 LA, CA 90006(구) 베버리순두부 자리

네이퍼빌제일장로교회 전임 부목사 청빙

시카고 근교 네이퍼빌에 위치한 네이퍼빌제일장로교회는, 주를 향하여 젊고 뜨거운 열정과 비전을 품은 사역자로서, 예배찬양사역과 교회행정을 협력해서 도울 부교역자(Full-time)를 모시고자 합니다.

■자 격: 정규 신학대학원에서 M.Div. 이상 신학훈련을 받으신 전도사님, 또는 목사님 (* 미국에 합법적 체류자, 또는 한국 목회자도 지원 가능: 종교비자, 영주권 도와드립니다.)
■제출서류: <이력서>와 간단한 <자기 소개서>를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접수마감: 6월 14일(토), 또는 교역자가 정해질 때까지

■이 메 일: mutulan@hotmail.com
■문의전화: 교회 630-778-0101, 안창민목사 630-962-7904
■교회홈페이지 주소: www.ilovechurch.org

네이퍼빌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 안창민)
23W550 Hobson Rd. Naperville, IL 60540

[서성록, 한 점의 그림] 서울 YMCA와 인재 양성

‘미술 교육’도 소홀히 하지 않았던 초창기 선교사들

서울 YMCA 회관, 당대 랜드마크
선교와 농촌 운동 외에 교육 주력
미술과 설치해 남녀 학생 모집도
6.25 이후 재건 힘쓰며 예술 진흥

“새 회관은 서울의 심장부에 우뚝 서 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중심부에 자리잡고 있다. 이는 진고개의 천주교성당(지금의 명동성당)과 함께 서울에서 가장 훌륭하고 출중한 건물이다(J. S. 게일).”

1908년 서울 YMCA 회관을 준공하면서 선교사 J. S. 게일은 이 건물이 서울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이 건축물은 영국 건축가 퍼시 비슬리(Percy M. Beesley, 1875-1927)가 설계한 것으로, 미국 미시간주 앤 아버(Ann Arbor) YMCA와 상해 YMCA 건물과 마찬가지로 신고전주의 양식을 따랐다.

(한국 신고전주의 양식의 또다른 예는 1928년 준공한 ‘구세군 중앙회관’이 있다. 이 예배당은 좌우 대칭으로 이루어진 안정된 외관과 현관 앞에 거대한 기둥을 배치했다.)

이렇게 건립된 서울 YMCA 회관은 한일 합방, 3.1 독립운동, 태평양 전쟁, 6.25, 건국, 민주화와 선진화 시기 등을 거치며 우리 국민들과 영광과 시련의 시간을 함께해 왔다. 초창기 한국 YMCA는 선교와 농촌운동, 스포츠 못지 않게 교육 사업에도 주력하였다. 교육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초대 회장 호머 헐버트(Homer Bezaleel Hulbert)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진정한 의미의 개혁은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지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개혁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성숙해지면 개혁은 마치 태양이 자연스럽게 솟아오르는

듯 소리없이 이루어지는 법이다. 이것은 즉 교육 문제이다. … 이것이 서울의 입장이며, 서울에 있는 Y의 목적은 교육과 계몽과 설교에 두어야 한다(Korea Review, 19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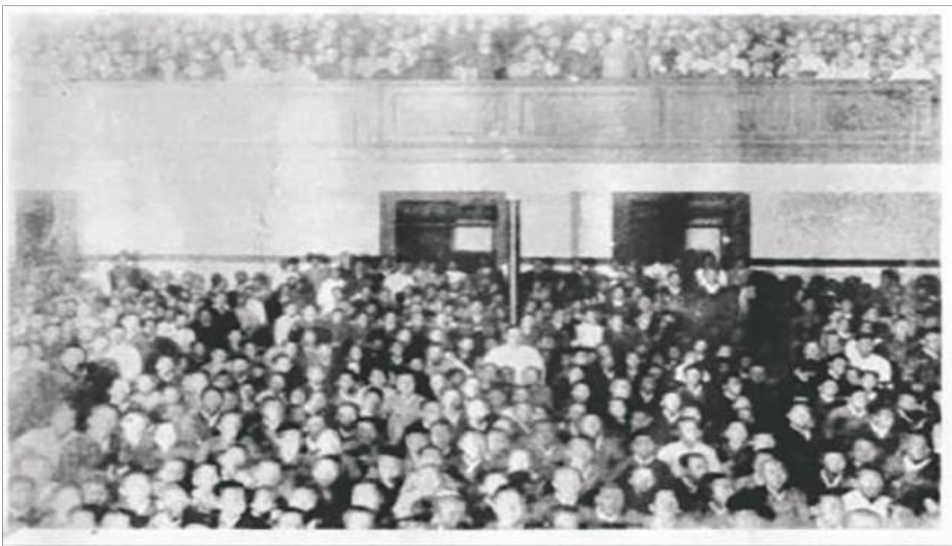
서울 YMCA는 초기부터 실업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인재를 키워내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당시는 조선조의 사농공상(士農工商) 신분질서에 따라 육체노동을 천시하는 풍조가 만연하고 있었기에, 직업교육 차원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전근대적 교육시스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실용학문을 도입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가르쳤다. 공업부에는 목공과, 철공과, 인쇄과, 사진과를 설치했는데, 사진과의 경우 최창근과 G. A. 그레그(G. A. Gregg)가 책임을 맡았다.

공업부의 책임자 로이드 스나이더(Lloyd H. Snyder)는 유능한 기독교 시민을 키워 졸업 후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방침을 세웠다. 이런 배경 하에 사진과는 1927년 동경 사진전문학교를 졸업한 신낙균을 영입해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는 사진 교육으로 재구성하게 된다.

기독교청년회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에게 잘 알려지지 않는 또 다른 예는 1920년대 중반 YMCA가 각종 사업을 활발히 펼칠 때 미술과를 설치하여 남녀학생을 모집한 일이다.

“조선의 수도 경성 안에는 아직까지도 미술에 유익한 사람도 많이 모여 살며 상당한 기술을 가진 미술가도 많이 모여 살건만 미술을 공부할 만한 학교도 없으며, 동양화는 연구회나 협회니 하는 강습소 같은 것이 있어서 불완전하나마 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을 기를 길이 있으니 서양화나 조각같은 것은 아무리 한다 해도 할 수 없는 터이던바, 이에 그 길에 유익한 사람들의 주석으로 종로 중앙기독교청년학관에다가 미술과를 새로이 끼우게 되었다(‘청년학관에 미술



▲서울 YMCA 강당에 운집한 사람들의 모습. 이 사진은 기요시 나카라이의 저술 <조선의 정부와 기독교의 관계(1921)>에 수록돼 있다. ©구글

과’, 동아일보, 1925.10.11).”

미술과가 공업부에 속했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전공을 동양화, 서양화, 조각 세 분야로 나누어 청소년들에게 동양미술사, 서양미술사, 원근법, 해부학 등을 가르치고 교수진도 동경미술학교 출신의 이한복, 김창섭, 김복진을 초빙하였다.

수업 기간을 얼마 동안 했는지 불확실하지만, 실기와 이론을 균형 있게 이수토록 한 것은 단순한 교습소 이상의 성격을 띠었음을 알려준다. 김소연 교수는 청년학관이 ‘서화학회’이나 ‘고려미술원’과 같은 기관과는 성격상 구분되어 있어 전문적 연구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도 요구되었음을 반영한다고 설명한다.

미술과 수료자들로서는 구분웅, 장기남, 양희문, 심영섭 등이 있다. 심영섭과 구분웅이 1930년대 미술계에서 서양화가로 두각을 나타냈다면, 장기남과 양희문은 김복진의 영향을 받아 조각가가 되었다. 그들은 당시 신인의 등용문이던 ‘조선미전’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었다. 구분웅, 장기남, 양희문은 모두 조각 분야에서 입선하는 성과를 나타냈다. 1927년 조선미전 조각부에 입선한 작가는 장기남, 양희문, 구분웅, 홍성덕, 안규응인데 이중 세 사람이 청년학관 출신들이었다. “조각에 있어서 점수로 일인측보다 많을 뿐만 아니라 실력에 있어서도 그래 보인다(“미전을 보고”, 조선 1927.5.30).”

이들이 본격적으로 실기를 한지 1-2년에 불과하며 아직 초보적 수준에 불과하지만, 전국 미술인들이 경쟁하는 공모전에서 입선하였다는 것은 특기할 만하다.

이보다 앞선 시기 1919년 경성 시내 고등보통학교 재학생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고려화회’가 있었다. 당시 교육기관으로는 1911년 서예와 동양화를 가르치던 ‘경성서화미술회’, 1915년 김규진에 의해 설립된 ‘서화연구회’ 등의 기관이 있었는데, 모두 전통회화와 관련된 곳이어서 서양화 지망생이

갈 곳이 마땅치 않았다. 그래서 조직된 것이 ‘고려화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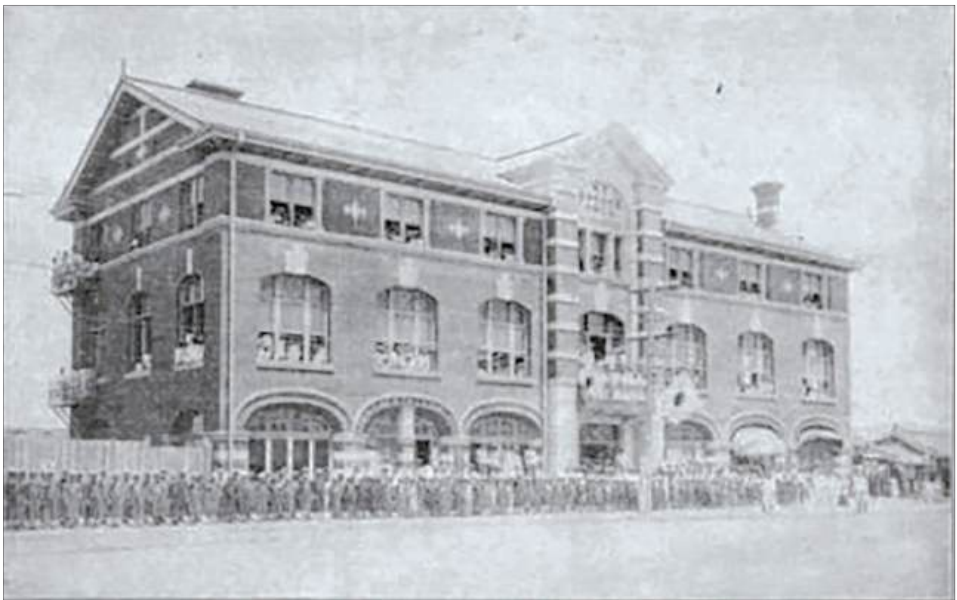
이 일에 발벗고 나선 사람은 고희동으로 추정된다. 그는 휘문·보성·중동 고보에서 미술을 가르치던 중,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공부를 받도록 지원하였다. 재학생들로 구성된 만큼 기초조형 과정에 해당하는 석고 데생과 정물화 등을 배웠으리라 짐작된다. ‘고려화회’ 회원은 박영래, 강진구, 김창섭, 안석주, 이계창, 장발 등 12명이며 이후 구분웅, 홍재유, 이재상이 가입하였다.

한국전쟁 이후 서울 YMCA는 전쟁고아 교육, 기독교 봉사, 여성 구호 등 다양한 사회사업을 통해 재건에 힘쓰는 가운데 예술인과의 관계를 이어갔다. 한국 전통문화를 보존, 발전시키자는 취지로 ‘사랑방 클럽’을 조직한 것이나, 서울 YMCA 창립 60주년 때는 ‘미술초대전시회’를 열어 창립을 축하하고 그 의미를 기렸다.

‘사랑방 클럽(1965. 7. 29-31)’은 창립 이듬해인 1965년 YMCA 회관 2층 전시장에서 회원들의 소장품으로 이루어진 서화, 골동, 고와(古瓦), 의상, 장신구, 조각 등 80여 점을 전시했고, ‘미술초대전전시회(1963. 10. 28- 11. 3)’에는 서양화, 조각, 서예, 사진 등에 걸쳐 70여 명의 작가가 작품을 출품하였다. 또 YMCA 회관 내에 김은호의 <부활 후>와 장운상의 <동심>, 김기승의 휘호, 이상범의 <천산설야 위의 예배당>, 김정숙의 <힘의 군상> 등 여러 작가들의 작품이 소장되어 있는데, 이것은 초창기부터 YMCA 운동에 참여했거나 주요 인사들과 교류했던 미술인들이 기증한 작품들이다.

서울 YMCA가 기독교인들의 모임에 그치지 않고 나라의 희망인 인재를 길러내는 산실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의 체험을 통해 미의식을 함양하는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서성록 명예교수
안동대 미술학과



▲신축된 서울 YMCA 건물 전경. 이 사진은 1908-1911년 사이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미네소타 대학 YMCA 아카이브 소장. ©구글

메디케어 전문 Agent

Annie Moon Lic# OB51378 문혜영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세요!

치과 Up to \$4,000~ Everyday Allowence(마켓, 유틸리티, OTC등)

안경, 보청기 Flex Card, Silver Sneaker + Extra Exercise 등등

메디케어만 가지신 분!

메디케어 & 메디칼을 동시에 가지신 분!

새로 메디케어를 받으실 분!

지방에서 이사오신 분 등!

모든 메디케어에 관한 정보와 문의는 애니 문과 상담하세요.



연락주세요! Annie Moon

T.(213)503-1669

메디케어 Plan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SMG 서울 메디칼 그룹
SEOUL MEDICAL GROUP



S 사랑하는 M 마음으로 G 가족처럼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서울메디칼그룹이 No.1 인 이유는
늘 따뜻한 마음으로 가족을 지켜온
오늘의 당신 덕분입니다

우리에게 No.1 이라고 하지만
우리에게 No.1 은 당신입니다

더 많은 사랑으로
더 건강한 시간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